EAI 사랑방 학생들의 베이징 답사 여행기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하영선 편

EAI
동아시아연구원

EAI 사랑방 학생들의 베이징 답사 여행기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하영선 편

EAI
동아시아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전자자료] : EAI 사랑방 학생들의 베이징 답사 여행기 / 편저자: 하영선. --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EAI), 2014
p.

ISBN 978-89-92395-76-2 05300 : 비매품

여행기[旅行記]
답사기[踏査記]
베이징[北京]

981.202-KDC5
915.104-DDC21 CIP2014015043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EAI 사랑방 학생들의 베이징 답사 여행기

편저자 | 하영선
발행자 | 하영선
발행처 | (재)동아시아연구원
발행일 | 2014년 5월 12일

편 집 | 신영환
디자인 | 신영환

주 소 |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전 화 | 02-2277-1683 (대표)
팩 스 | 02-2277-1684/1697
홈페이지 | www.eai.or.kr
등 록 | 제2-3612호(2002. 10. 7)

ISBN 978-89-92395-76-2 05300

비매품

목차

머리말 004

답사일정표 006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 _중국국가박물관 ❶ 지혜수 009

삼천 년의 역사와 만나다 _베이징 수도박물관 ❷ 강진혁 029

자금성의 춘하추동 ❸ 강화현 041

베이징 유리창 _타임머신을 타고 연행사의 마음을 읽다 ❹ 이규원 057

백년국치의 상징, 원명원 _21세기 연행사의 눈으로 다시 보기 ❺ 김지은 071

서태후의 궁전 _새롭게 쓰는 이화원 기행문 ❻ 전나눔 085

두 얼굴의 마오쩌둥 ❼ 우희원 099

부록 111

머리말

동아시아연구원 사랑방의 젊은 그들이 첫 해외답사를 나섰다.

지금부터 백사십년전 박규수 사랑방에서 개화파의 젊은 그들은 서양을 금수로 보는 위정척사의 답답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문명 표준으로 부상하는 유럽을 공부한 후 훗날 해외견문에 나섰다. 그보다 백년전 북학파의 젊은 그들은 당시 북벌론의 대세를 넘어서 박지원을 스승삼아 밤늦도록 짝퉁이 아닌 명품 조선 재건에 필요한 청국을 공부하고 연행 길을 떠났다.

21세기 세계질서는 문명사적 재건축 기에 들어섰다. 동아시아는 그 선두에 서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신형대국론을 포함한 신외교론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론을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도 신외교정책 개념을 내걸었다. 북한은 경제-핵 병진론을 애기하고 있고 한국은 동북아평화구상을 밝혔다.

동아시아연구원 사랑방의 젊은 그들은 동아시아라는 삶터의 모든 주인공들이 만족하는 천년대계의 복합설계도를 마련하기 위해 한학기

동안 동아시아질서 건축사의 지적 유격훈련을 받았다. 전통 천하질서, 근대국제질서, 냉전국제질서 복합세계질서의 동아시아 3천년사를 숨가쁘게 달렸다.

훈련의 마지막 단계로 중국의 천년수도 베이징을 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통 천하질서의 3천 년을 피부로 느꼈고, 근대국제질서의 충격을 함께 했으며, 냉전 국제질서를 거쳐, 복합 동아시아질서의 꿈을 꿨다.

젊은 그들은 꿈의 전도사로서 사랑방을 떠나 더 넓은 세계로 떠난다. 그 첫 걸음마로 그들이 겪었던 베이징답사기를 준비했다. 부족하더라도 모두들 격려의 눈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다. 힘든 한 학기 그리고 답사기간 동안 즐겁게 함께 뛴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랑방의 꿈을 후원해 준 동아시아연구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믿음이 가슴을 뿌듯하게 만든다.

2014년 3월 31일

만청 하영선(晩靑 河英善)

답사일정표

2014년 1월 3일 금요일

9:45	도착
11:00 - 12:00	점심식사
12:20 - 2:30	자금성 / 강화현◆ 1인당 40위안. Treasure Gallery, Hall of Clocks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추가 10위안
2:30 - 5:00	국가박물관 / 지혜수◆ 무료-여권을 보여주면 티켓 오피스에서 공짜로 티켓 구입. 입장권 판매 마감 시간 오후 3시 30분, 입장 마감시간 오후 4시
5:30 - 7:30	저녁식사
7:30 -	왕푸징거리, 천안문광장

2014년 1월 4일 토요일

9:00 - 11:30	수도박물관 / 강진혁◆ 무료 (일부 전시관 유료). ※ 단체 관광객은 1주일 전 전화예약을 권장함.
11:30 - 12:30	점심식사
1:00 - 3:00	원명원 / 김지은◆

정문티켓 10위안. 다수이파 유적(서양루 풍경지역) 관람은 추가 15위안, 원명원 전성기 모형전시는 추가 10위안. ※ 가이드 기계 08:30-17:00 사용가능. 보증금 200위안, 외국어 사용료 40위안

3:00 - 5:00 이화원 / 전나눔◆
비수기 20위안, 종합 입장료 50위안. 종합입장료는 이화원 문표, 원중원 문표, 문창원, 덕화원, 불향각, 수조거리를 포함

5:00-7:00 저녁식사

7:00-10:00 유리창, 천구단 / 이규원◆
천구단 입장료 10위안, Through Ticket->30위안, Divine Music Administration and The Palace of Abstinence 10위안

2014년 1월 5일 일요일

9:30 - 12:00 모주석기념관 / 우희원◆
무료. 개방시간: 08:00-12:00

12:00 - 1:00 점심식사

1:00 - 3:00 798예술구 / 이소영◆
무료 (일부 화랑 등 유료)

5:30 귀국

EAI사랑방

2013년부터 시작된 소규모 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1장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
_중국국가박물관

지혜수
연세대학교

중국국가박물관을 가다

2014년 1월 3일, 아침 일찍 인천을 떠나 베이징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첫날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첫날의 일정은 점심을 먹고 자금성-중국국가박물관(中国国家博物馆) 순으로 답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으로 훠궈를 너무 맛있게 먹는 바람에 자금성 답사를 둘째 날로 조정하게 되었고, 첫째 날은 중국국가박물관만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국가박물관을 첫 번째 답사지로 관람하게 된 것은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한 시대를 보여주는 다른 답사지들과는 달리, 중국국가박물관은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설계도를 찾기 위해 떠난 베이징 답사 여행을 훌륭한 조감도와 함께 시작하게 된 셈이지요. 첫 방문지로서의 국가박물

관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취임 후 첫 방문지가 바로 중국국가박물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방 수업에서도 많이 토론하였던 '중국의 꿈'(中国梦)을 시진핑이 최초로 역설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중국국가박물관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일까요? 이후 그의 리더십의 중요한 슬로건이 되는 '중국의 꿈'을, 최초로 언급하는 장소로 국가박물관을 선택한 것은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중국국가박물관에 입장한 저희는 엄격한 보안 절차를 통과하고 드디어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보았을 때도 크다고 생각했지만, 내부는 정말 넓고 크고 으리으리했습니다. 총면적은 20만 제곱미터에, 상설전시 외에도 기획전시 및 국제교류전시 등 전시관이 48개에 달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식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중국국가박물관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12년부터 시작하여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비교적 최근에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재개관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따로 운영하던 중국역사박물관과 중국혁명박물관을 2003년에 합병하여 재개관하고, 2007년 다시 대대적인 확장공사를 통해 지금과 같은 최신식의 시설을 갖춘 박물관으로 2011년에 재개관하였습니다. 2011년 재개관한 중국국가박물관은 "고대중국"과 "부흥의 길"이라는 2개의 상설전시관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관람한 곳은 바로 지하 1층에 위치한 "고대중국" 상설전시관이었습니다.

"고대중국" 상설전시관으로 이동하기 전, 1층에 마련된 마오쩌둥(毛澤東) 특별전시를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마오쩌둥이 직접 쓴 글들과 중국 현대미술작가들의 마오쩌둥 그림과 조각이 전시되어 있는데, 아주 호남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소영이가 흥미로운 점을 가르쳐주었는데, 전시작품들이 대부분 눈높이보다 훨씬 위에 있어서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마오쩌둥을 올려다보며 관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시장 한가운데 서있는 6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마오쩌둥 동상이었습니다. 이 특별전시는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 기념 전시로,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동상은 우리가 방문하기 열흘 전, 마오쩌둥의 120주년 생일(1893년 12월 26일생)을 맞아 전시된 따끈따끈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사장님께서 동상과 같은 포즈를 취하시고 찍으신 사진은 모두에게 깨알 같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마오쩌둥 전시를 보고 나와 지하 1층 "고대중국" 상설전시관으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시기_ 우리는 단군의 자손, 중국민은 황제의 자손

"고대중국" 상설전시관은 왕조 순으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국가박물관을 관람하기 전에 왕조 순으로 쓰여진 중국사 서적을 읽고 가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사 관련 책들을 읽다


毛泽东书法与当代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생깁니다. 지은이가 중국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서 첫 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저자들은 상왕조부터 본격적으로 기술하는 반면, 중국인 저자들은 삼황 오제의 신화시대부터 자세하게 다루며 기원전 2070년 우가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왕조인 하왕조를 건립했다고 연도까지 확정하여 쓰고 있습니다. 상왕조는 그 실체가 분명한 역사시대이지만 하왕조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소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 통용되는 모든 역사 서술은 하왕조의 성립 연대까지도 확정적으로 기원전 2070년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적인 연대는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과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과 같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역사 연구사업의 결과입니다. 특히 중화문명탐원공정은 중국 고대 문명의 기원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기원전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시기를 황제시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중화민족은 황제의 자손으로 하나의 뿌리라는 메시지가 공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셈입니다. 이를 반영하는 사례로, 섬서성(陕西省) 황제릉(黃帝陵)에서 청명절(清明节)에 열리는 황제 제사가 2004년부터 국가급 전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이유진 2013). 따라서 “고대중국” 전시관의 첫 번째 전시실인 원고시기(远古时期) 전시실에서는 이러한 ‘황제’ 개념을 생각하면서 둘러보면 좋을 것입니다.

하상서주시기_ 청동기, 그 놈이 그 놈?

두 번째 전시실인 하상서주시기(夏商西周时期) 전시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았던 것은 청동기의 발달입니다. 상주시대에는 청동을 제련하고 주조하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생산과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상주시대 사람들은 이미 구리와 아연의 비율을 정확하게 조제할 수 있었으며 각종 용도에 따라 경도가 다른 청동기를 제조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모무동정(司母戊铜鼎)은 높이가 1.33미터, 무게가 832.84킬로그램으로,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청동기입니다. 상대 후기 만들어진 왕실 제사용 청동 사각 솥으로, 각각의 부분을 따로따로 만든 후 하나의 완전한 완성품으로 주조한 것입니다. '정'(鼎)이란 원래 3개의 다리와 2개의 귀(손잡이)를 가진 청동기를 뜻합니다.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삶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고, 음식을 담아두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정과는 다르게 사모무동정은 사각형모양으로 원주형의 다리가 네 개입니다. 상부에는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있는 도안이 있고, 몸체는 네 면의 중앙에 무늬가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구름과 번개문양 등의 다양한 형태의 세밀한 문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면 벽에는 사모무(司母戊)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이 문물의 명칭이 사모무동정이 되었습니다. 사모무동정은 현존하는 청동기 중 형태, 장식, 공예 모두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며, 상대 청동기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었는지를 짐

작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의 뛰어난 청동기문화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유물로는 고대 중국 전시포스터에도 등장하는 사양청동방준(四羊青铜方尊)이 있습니다. 처음 고대 청동기 유물 조사를 시작할 때, 청동기 이름들이 모두 생소하고 길고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명칭을 붙인 원리를 이해하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사양청동방준의 '사양'은 네 마리의 양을 뜻합니다. 고대 중국어에서는 상서로움을 뜻하는 글자 祥(상)이 羊(양)과 같았는데요, 이 때문에 고대인들은 양을 장식에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방'은 사각형, '준'은 술잔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양청동방준은 "네 마리 양이 있는 청동 사각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청동기 유물의 이름 글자를 뜯어보니, 먼저 끝 글자를 통해 용도를 나타내고, 유물의



특징적인 외형이나 새겨진 글자 등을 따서 앞에 붙여 그 청동기 유물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발견 후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였던 지루한 청동기 유물들이 저마다 흥미로운 특징과 용도를 저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모무동정과 사양청동방준이 주조되었던 상나라 후기를 지나, 상 왕조를 무너뜨리고 건립된 주나라의 청동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나라 시기에 중요하게 작동한 통치제도 중 하나가 분봉제(分封制)입니다. 분봉제는 간단히 말해서 주왕과 제후 간의 의무에 관한 제도입니다. 주왕은 친척과 공신들에게 영토와 백성을 내려주고, 분봉 받은 제후들은 봉지를 관리하고 왕실에 충성해야 하는 의무를 담당합니다. 종법제와 더불어 분봉제는 주대에 전국 각지를 통제하고 단결시켜 정치국면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분봉제 연구의 귀중한 사료 중 하나가 국가박물관이 소장한 대우정(大盂鼎)이라는 청동기입니다. 대우정은 주나라 강왕 23년(BC1003) 주조된 청동기로, 안쪽에는 19행의 명문이 2단으로 모두 291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명문은 왕이 우(盂)라는 귀족에게 선왕들의 선정을 공경하고 자신을 잘 보좌해 달라는 부탁과 우에게 신민과 노예 및 이것을 하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대 분봉제의 주왕과 제후 간의 의무와 책임이 명문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대우정은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큰 청동기 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찾아도 전시관에서 대우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시도록에서도 보았고, 국가박물관 홈페이지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유물이라 국가박물관이 분명 소장하고 있는 유물인데 찾을 수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며 당황했었습니다. 후에 박물관 측이 대우정 등의 상주시기 주요 청동기를 테마전시로 다른 층으로 옮겨 전시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물관 자체의 상설전시와 테마전시 구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진한시기_ 포디즘의 원조는 진시황릉의 병마용?

춘추전국시기(春秋战国时期) 전시실을 지나 진한시기(秦汉时期)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시황이 난립하던 제후국들을 통일하면서 혼란의 춘추전국시기는 막을 내리고 중국 최초의 전제주의적 다민족 중앙집권국가인 진나라가 등장합니다. 진시황으로 알려진 진왕 영정은 스스로 삼황(三皇) 오제(五帝)보다 뛰어나다는 의미에서 황제(皇帝)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하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확립한 후, 그는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고 수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국의 통일과 융합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대 중국의 영문 명칭인 '차이나'(China)도 진을 뜻하는 'Chin'에 나라를 뜻하는 접두사 'a'를 붙인 명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니, 고작 15년 지속된 통일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나라가 후대 중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은 사상 통일을 위해 고서를 불태워 버리고 유생들을 생매장하는 분서갱



유를 단행하였고, 아방궁과 만리장성 건설을 위한 과도한 부역과 세금으로 인하여, 그의 사후 대규모 농민봉기가 일어나 진나라는 건국 15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국가박물관에 전시된 병마용은 시안의 진시황릉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따르면 진시황릉을 짓기 위해 10년 넘게 70만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습니다. 병마용의 병사들은 장인들이 머리, 몸통, 팔 다리가 각각 따로 제작한 후 결합하였으며, 연구 결과 다리를 제외한 부위들은 각각 여러 종류의 틀이 있어 이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병마용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립을 위해서는 각 부분을 맞춘 뒤 다음 과정으로 넘겨주는 생산공정에 따른 조립 라인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방에서 각 부분을 생산할 때, 품질보증 및 관리를 위해 생산한 장인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1] 그렇다면 이 병마용이야말로 포디즘과 생산자 표시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Terracotta_Army.

진시황의 병마 토우를 지나 진한시기 전시실의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중앙쯤에 누워 있는(?) 유물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라처럼 보이는 이 유물은 한나라 황제와 고급 귀족들이 사망한 후 입혔던 옥으로 만든 수의입니다. 한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옥갑(옥의)을 입으면 시체가 부식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귀족의 신분에 따라 금실, 은실, 동실을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전시된 유물은 옥 조각 1,203개, 금실 약 2,567그램이 사용된 호화로운 금실옥갑이었습니다. 옥갑주인이 기원전 55년에 사망하였다고 하니 이 옥갑은 시대적으로 서한 말기에 제작되었을 것입니다. 서한 말기의 황제들은 모두 극도로 무능하고 부패하여 외척들 손에 조정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사회 문제들이 악화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은 여전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갑이 보여주는 한나라 말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의 배경에는 장건의 서역개척을 계기로 개통된 실크로드를 통한 외국과의 활발한 문물교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삼한양진남북조시기_ 북위의 마두녹각형금보요와 효문제

진한시기 전시실을 나와 들어간 삼한양진남북조시기(三国两晋南北朝时期, 위진남북조) 전시실이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눈을 잡아 끌었던 것은 화려한 금빛의 머리장신구인 '보요'(步摇)였습니다. 보요는 중국 고대 부녀자들의 중요한 머리 장신구의 한 가지로, 나비나 꽃 등 다양한 모양의 장식품이 열매처럼 달린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한 장신구를 머리에 꽂고 걸어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상상해보면 사뿐사뿐 걸음을 뗄 때마다 가지에 매달린 잎들이 하늘하늘 흔들리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걸음 보(步)에 흔들 요(摇)를 써서 보요(步摇)라 부릅니다. 삼국시대 귀족 여인들의 지위를 과시하는 패셔너블한 장신구였던 보요는 중원에 들어선 이민족 북위 여인들에게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국가박물관에서 보았던 보요는 북위의 유물로 마두녹각형 금보요와 우두녹각형 금보요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북방 유목 민족답게 초원에서



흔히 보는 말과 사슴 등의 형상을 도안으로 하여 말머리 형태와 사슴뿔 가지에 금잎을 달았습니다. 삼국시대 한족 귀족층의 장신구에 선비족 문화가 첨가되어 북위 여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금보요 유물을 보니, 북위의 효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소설 《삼국지》(三國志演義)에 등장하는 위 · 촉 · 오 삼국시대를 끝낸 진(晉)나라는 내부의 왕위 찬탈전을 겪으며 국력을 소모하다가 결국 유목민족인 흉노족에 의해 멸망합니다. 진의 멸망은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으로 한족이 아닌 왕조가 중원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남쪽으로 피난을 간 한족이 강남에서 왕조(남조)를 세우고, 화북에서는 비 한족인 이민족 왕조(북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남조와 북조가 제각기 몇 번의 왕조교체를 거치며 대립하는 남북조 시대는 수가 통일을 이루기까지 약 300년 간 이어지게 됩니다. 전시된 금보요가 만들어진 나라인 북위는 북방 유목민족인 선비족이 세운 나라로, 439년 화북 지역을 통일하여 북조의 시작이 되는 나라입니다. 북위의 제7대 황제인 효문제는 친정기간이 10년에 불과하지만, 사랑방에서 중국의 천하질서와 중화사상을 공부한 우리들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왕입니다. 어려서부터 중국의 고전을 배우며 자란 효문제는 적극적으로 선비족을 한족의 문명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비족이 이미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북위의 초기 수도 평성에서는 그러한 한화정책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문제는 역대 한족 왕조들이 수도로 삼았던 낙양으로의 천도를 단행합니다. 그는 선비족의 전통 복식을 금지하고 언어 역시 한족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선비족과 한족의 혼인을 장려하고 한족식 성을 따르게 하는 등 선비족을 철저하게 한족의 문명에 동화시켰습니다.

효문제의 이러한 한화정책은 이(夷)가 화(華)의 천하질서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동화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사상이 오늘날 흔히 오해되는 것처럼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사상으로 볼 수 없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중국의 어떤 학자들은 효문제의 개혁을 중국을 통일한 다민족 국가 발전의 본보기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나라 이후 각 민족들의 생활방식과 언어가 모두 달라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되었었는데, 북위의 효문제는 우수한 선진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통일된 언어와 문화를 꾀함으로써, 소수 민족이 중국을 통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쑨톄 2011).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떠올리면서 전시된 보요를 보자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선비족이 한족의 보요를 받아들인 것은 북위 이전의 일이지만, 한족의 문화와 선비족의 문화가 적극적으로 융합된 모습의 금보요 전시 유물은 천하사상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려고 한 효문제와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당오대시기_ 최첨단 국제화 도시, 글로벌장안

수당오대시기(隋唐五代时期) 전시실에서 친구들과 흥미롭게 이야기했던 주제는 국제화 도시, 당의 수도 장안이었습니다. 전시실 한쪽 벽에 크게 붙어 있는 도성도를 통해 장안이 물 공급과 배수시설을 완비한 최고 수준의 계획 건축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 현종이 개원의 치라는 태평성대를 이끌었을 때에는 장안의 인구가 100만에 달했으며 주변 각국의 조공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장안은 시리아인, 아랍인, 페르시아인, 티베트인, 한국인, 일본인 등이 공존하고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기독교, 불교 사원들이 공존하는 실크로드의 기점이자 세계 최고의 국제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며 전시된 당삼채(唐三彩)를 보니 당의 활기찬 국제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듯 하였습니다. 당삼채는 녹·갈·황색의 유약으로 화려하게 칠한 당나라의 도기로 주로 귀족들의 장례용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시실의 당삼채들은 하나하나가 다채롭고 독창적인 생동감을 지니고 있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무덤에 묻기 위해 제작된 것이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머리를 추켜든 낙타가 등에 5명의 악사들을 태우고 있는 사진의 당삼채에서도 익살스러운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고 나머지 네 사람이 둘러 앉아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고 흥겹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중 코가 훨씬 더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외국인 얼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족과 외국인 악사들이 함께 어울려 낙타 위에서 즐겁게 연주하는 당삼채를 통해 당대 사람들의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송하금원시기_
송의 패러독스 : 부(富)의 나라 송, 부 때문에 망하다

요송하금원시기(辽宋夏金元时期) 전시실의 압권은 단연 송대의 도자기였습니다. 송대에 이르러 새로운 유약이 개발되고 굽기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여요, 관요, 경덕 등 나름대로의 특색을 자랑하는 유명 도요지가 여러 곳 출현하여, 도자기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시된 송대의 도자기들을 보니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형태와 색과 특징이 모두 제각기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도자기 전시품들은 정말 우아하고 예술적이어서 모두가 눈을 떼지 못하고 감탄사를 연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문득 페어뱅크(J. Fairbank)가 지적한 "송의 패러독스"(paradox of Song)가 생각이 났습니다(Fairbank 2006). 송대에는 사치품 단계의 도자기뿐만 아니라 일상용 도자기도 활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서민들도 도자기를 사용하였고, 만담이나 잡극 등의 서민문화가 확산되어 향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송나라가 그만큼 물질적으로 부유하였음을 뜻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상업의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이모작 쌀 품종이 개발되고, 논이 대규모로 개간되면서 세 배로 증가한 곡물 생산량은 상품경제의 질적인 전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송대에 해상무역이 개시되어 대외무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화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최초의 지폐가 바로 이때 송나라에서 발행됩니다. 당시 전세계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의 6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송나라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한편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송의 찬란한 도자기 문화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과 과학기술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



니다. 세계 문명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모두 송나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지나친 문치주의로 인해 군사적 측면에서 송나라는 그 어느 왕조보다 약체였습니다. 이민족이 침략해올 때마다 송은 전쟁을 치르는 대신 공물을 쥐어 보내는 강화조약을 선택하였고, 결국 문명의 절정기를 이루었음에도 이민족에 의해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송나라의 패러독스가 떠올라, 전시실의 아름다운 도자기 예술품을 보면서 마냥 감탄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전시실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입구에 붙어 있는 전시실의 이름입니다. 요송하금원시기(辽宋夏金元时期)에 쓰인 글자들을 살펴보니, 요·송·금·원은 알겠는데 하(夏)라는 글자에서 고개가 갸웃했습니다. 하(夏)는 티베트계 탕구트족의 왕조인 서하(西夏)를 뜻하는데, 제가 읽고 간 중국사 관련 서적들에서는 요송금원시기(辽宋金元时期)라며 대부분 누락되거나 아주 짧게만 언급되어 있어 생소하게 느껴졌었던 것입니다.

서하의 초대왕 이원호는 부족을 통합해 송으로부터의 독립을 천명하여 나라를 세우고, 독자적인 서하문자를 반포하였는데,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서하문자를 보면 중국에 대한 대항의식과 자존감이 반영된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예로 중국이란 뜻의 서하 문자는 각각 “작은”과 “벌레”를 뜻하는 의미요소가 더해져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2] 그렇다면 위에서 이야기했던 북위의 경우와는 달리, 서하의 경우 중화질서에 오히려 반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Wikipedia.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D%95%98_%EB%AC%B8%EC%9E%90

더 흥미로운 것은 몽골에 의해 멸망한 서하의 후손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 국영중앙방송국(CCTV)에 따르면 칭기즈칸이 서하를 점령할 때 서하인들이 끈질기게 저항했던 것에 분노하여 서하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살육하여 멸족시켰다고 합니다.[3] 그렇다면 서하는 현재 중국인민공화국과 문화의 연속성도, 민족의 연속성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연속성을 적게나마 지니고 있는 다른 정복왕조들과 달리 서하는 오로지 영토의 연속성만으로 송과 동등하게 요송하금원시기(辽宋夏金元时期)라고 불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동북공정이 주장하는 고구려의 중국사 편입도 당연해 보입니다. '요송금원시기'라 부르느냐, 혹은 '요송하금원시기'라 부르느냐가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명청시기(明清时期) 전시실을 막 들어섰을 때 박물관 관람시간이 30분 남았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명청시기 전시실을 제대로 둘러보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는 송나라보다도 훨씬 더 번영했던 나라였습니다. 청의 최전성기였던 강건성세 때의 이야기를 준비했었지만 박물관에서 꺼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이야기는

[3] Wikipedia. http://discovery.cctv.com/20070214/100813.shtml

자금성과 이화원에서 다시 펼쳐질 것이기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전시관을 나왔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중국국가박물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부흥'(复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마치 박물관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찬란한 과거가 전제되며, 그 영광을 미래에 다시 이루고자 하는, 비교적 쇠퇴한 현재의 소망과 목표가 담긴 단어입니다.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곳. 백년국치의 비장함이 서려있는 곳. 그리고 G2시대의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의 미래를 외치는 곳. 중국국가박물관은 "复兴"이라는 단어 그 자체였습니다. ■

참고문헌

이유진. 2013.《상식과 교양으로 읽는 중국의 역사》. 파주 : 웅진지식하우스.

쑨톄(孫鐵). 2011.《성찰적 지식인 청년 학생을 위한 중국사 산책》. 서울 : 일빛.

Fairbank, John K. 2006. *China: A New History*. Second Enlarged, ed. London: Belknap Press.

2장

삼천 년의 역사와 만나다
_베이징 수도박물관

강진혁
서강대학교

《북경자전거》. 내가 베이징(北京)이라는 도시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영화입니다. 시골에서 베이징으로 온 한 중국 소년이 택배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자전거를 주어서 배달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이 택배를 배달하느라 자전거를 두고 간 사이에 누군가가 자전거를 훔쳐갔고, 이것을 찾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1년에 나온 오래된 영화이고,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에 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 내용이 흥미로웠기에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베이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도 이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통해 상상할 수 있는 베이징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는 막연히 자전거가 많은 도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며

▶천안문광장의 모습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베이징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은 천안문광장 정도입니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광장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중국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고, 이 시위는 우리나라의 광주 시민들이 겪었던 것처럼 중국 당국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는 사실 정도가 베이징에 대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베이징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도시이자, 민주화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도시 정도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막연히 베이징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베이징의 간략한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베이징은 일찍이 화북(華北) 대평원과 북방의 산간지대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서 역사상에 등장하였습니다. 생산력의 증대에 따라 평야지대와 산간지대 사이의 교통이 빈번해지자 그 교통로의 요충을 차지한 고대취락이 점차 발전하였으며, 진 · 한 이후 당나라 말기에 이르는 기간에는 대체로 동북변

방의 정치 및 군사상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오대(五代)에 이르러 요나라는 938년에 이곳을 부도(副都)로 삼아 남경(南京)이라 하고, 요나라를 물리친 금나라는 처음 연경(燕京)으로 부르다가 1153년에 이곳으로 천도하여 중도(中都)라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몽골족이 남하하여 중도성(中都城)을 빼앗은 뒤 쿠빌라이(世祖) 때에 신성(新城)을 건설하고 국도로 정하여 대도(大都)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 후 몽골족이 중국을 통일하여 원나라를 세우자 대도는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정치중심지가 되며 수도로 지정되었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도시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명나라 때에는 처음 국도를 지금의 남경에 두었다가 1420년에 영락제(永樂帝)가 이곳을 국도로 정하고 북경(北京, 베이징)이라 하였습니다. 명대에는 남문 밖에 외성(外城)을 구축하고 북부의 성역(城域)을 대도 때보다 축소하여 내성(內城)이라 불렀는데, 그 내·외성이 지금의 베이징성의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도 1644년 이후 멸망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국도로 하였습니다. 그 후 베이징은 국민당 정부가 난징을 다시 수도로 정하고 1930년 베이징은 베이징핑으로 개칭하였으나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다시 수도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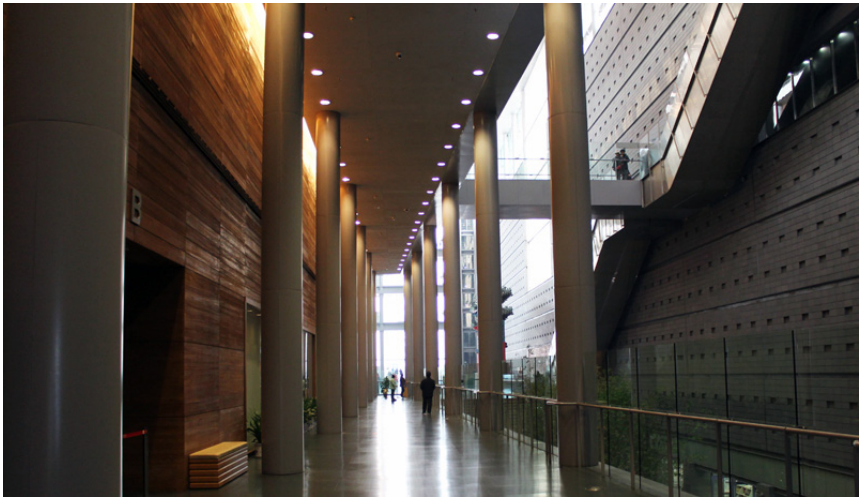
이처럼 베이징은 정치, 군사적 요지, 교통의 중심지로서 왕조를 거치며 이름은 바뀌었지만 고대부터 중국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며 수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1000여년의 역사를 가지는 중국 7대 고도의 하나로 중국에서 문화유적이 가장 많은 주요 관광도

[1] 문화콘텐츠 닷컴 (문화원형백과 한민족 전투). 2002. 한국콘텐츠진흥원.

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 수도박물관은 고대부터 전해져 온 베이징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베이징이라는 도시의 특징을 잘 담고 있습니다. 수도박물관은 1981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역사와 생활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국자감 공자사원(北京国子监孔庙, 북경국자감공묘) 안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중국 수도에 걸맞은 최신 현대식의 대형 건물로 새롭게 건축되었습니다.[2]

그래서 그런지 수도박물관을 갔을 때 제가 처음으로 받은 느낌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웅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박물관을 웅장하게 지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증이 생겨 교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교수님께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겨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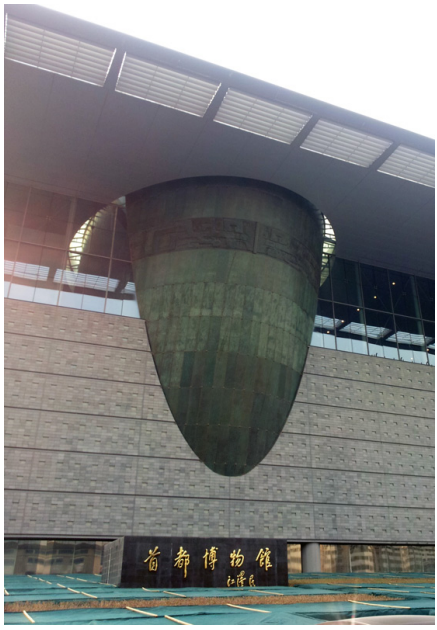
▶ 웅장한 수도박물관 내부



[2]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전시관, 미래를소유한사람들.

여 중국당국이 베이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했다는 점이 재건축의 주요한 이유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한번의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자국의 역사, 문화의 우수성까지 널리 홍보함으로써 자국의 이미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고하고자 세심하게 노력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베이징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수도 역할을 해 온 서울에도 수도박물관과 같은 박물관이 생겨서 서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를 갖춘 박물관은 입구의 동쪽에 종모양의 원형전시실과 오른쪽(서쪽)의 유리로 꾸며진 일반 전시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쪽 전시관에는 주로 미술, 회화, 서예 등 예술 분야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에는 고대부터 내려온 유물도 포함되어 있어서 고대부터 이어져 온 베이징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서쪽에는 역사유물, 건축물, 베이징의 옛 문화 등 역사 중심의 주제별 전시관이 있습니다.[3] 수도박물관 방문 당일에는 박물관 전체를 다 둘러보



◀종 모양의 원형전시실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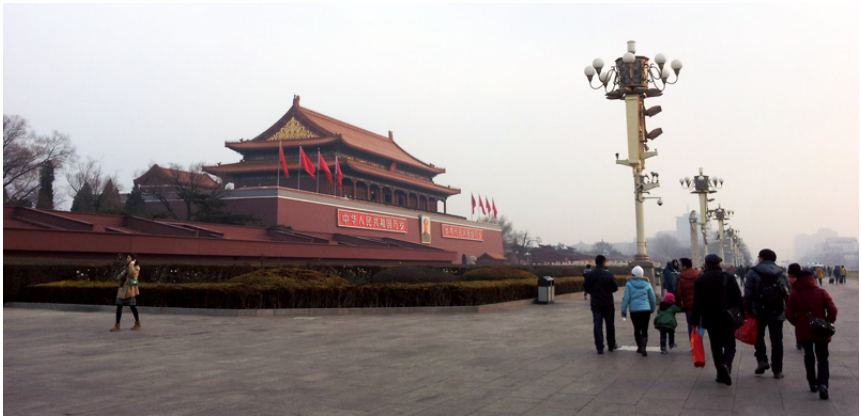
[3] http://travel.daum.net/place/place.daum?placeid=HTCC02CBJS0001

고 싶었지만 일정과 시간의 제약으로 주로 입구 서쪽에서 소개되는 전시를 살펴 보았습니다.

베이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베이징이 잘 짜인 계획도시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골목 및 거리를 의미하는 중국말인 후통(胡同)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계획도시로서의 베이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징은 크게 두 개의 도시, 세분하면 4개의 도시로 구분됩니다. 본래 몽고인이 만든 성이 내성으로, 내성 내부에 황성이, 그리고 황성 내부에 자금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명대에는 자금성의 아래쪽에 건설한 성이 외성으로 이어져 모두 4개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성과 외성은 주로 육중한 성문이 두드러지고 황성과 그 안의 자금성은 우아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돋보입니다.

이처럼 베이징은 여러 개의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남쪽의 외성은 주로 성벽과 검정기와로 덮인 건물들이 있고, 이를 지나서 내성으로 들어오면 반짝이는 청기와 지붕과 금장식을 한 적색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에서 볼 수 있는 중국식 건물들은 주로 내성의 건물들임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성 입구의 문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고 오문에 가까워지면 바로 자금성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외정 그리고 내정에까지 이르면 황금색으로 되어 더욱 강렬한 색체를 지니게 됩니다. 이처럼 북경은 도시의 외곽에서 중심부로 갈수록 지붕의 색깔이 어두운 색에



서 황금색으로 점차 바뀐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처럼, 베이징은 사람들이 엄밀한 계획에 따라 건설한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시기부터 내려오는 주례 고공기(周禮 考工記)라는 베이징 도시건설 계획도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근거입니다.

《주례》는 중국, 주대의 관제(官制)를 기술한 경서입니다. 관제는 천 · 지 · 춘 · 하 · 추 · 동의 6부서로 나누기 때문에 《육관》(六官)이라고도 하는데 그 중 동관(冬官)의 기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제(成帝, 재위 BC 33 – BC 7) 때 보완한 것이 《고공기》이며, 이 둘을 합해서 "주례 고공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후대 중국 역대 왕조의 도성건설에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 주례 고공기를 근거로 BC 1500년경부터 도시계획의 대원칙을 정해놓고 모든 도시를 이에 맞춰서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대원칙들 중 몇 가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 수도는 9리, 사방으로 된 정방형(正方形)일 것.
- 네 개의 기본방위에 일치시키고 성벽으로 둘러 쌀 것.
- 궁궐의 남문에서부터 성 남쪽 중앙의 남문까지 대로를 낼 것.
- 성내에 9개의 남북도로와 9개의 동서도로를 낼 것

▶청나라 시기 도시구획도



이렇게 고대 시기부터 있었던 도시건설계획의 대원칙들을 통해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사각형으로 나누어진 구획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베이징이 계획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이러한 특징은 수도박물관에 나온 청나라 시기 베이징 도시구획도 에서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부터 전해 내려져 오는 도시건설의 기본 틀이 잘 유지되는 도시가 베이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이징의 지금 모습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중앙의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계획적 인위적 노력에 의해 탄생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베이징을 관통하는 특징인 후통을 살펴 보겠습니다. 후통은 북경의 골목 및 거리를 의미하는 중국말입니다. 후통의 전통 주거양식은 사합원(四合院)으로, 이는 가운데 정원을 중심으로 4개

가구가 'ㅁ'자 모양으로 동서남북에 주거하는 주거형태를 말합니다. 이 사합원이 바둑판처럼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후통입니다. 베이징성은 구획과 배치상 황성을 중심으로 남북으로는 주요 도로가 뻗어있고 동서로는 간선도로가 놓여 십자형의 도로망을 만들고 있으며, 종횡으로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을 나누어 거주지역을 분리하고 각각의 거주지역을 '방'(坊)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좌우대칭의 바둑판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렇듯 후통은 베이징의 도시건설계획에 부합하도록 형성된 골목 및 거리입니다. 후통은 회색 담에 회색 기와이고 한 가지 모양입니다. 그리고 후통은 베이징 역사의 변천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베이징 토박이들의 말에 따르면 하나하나의 민속적 분위기를 내는 전시관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통을 돌아보지 않고는 베이징과 베이징 사람들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합니다. 박물관에서 접한 후통과 사합원은 베이징인들의 일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도박물관 관람을 통해 베이징 사람들이 사합원이라는 전통주거양식에 거주하며 후통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해왔음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모습

그래서 박물관 관람 후에 영화《북경자전거》를 다시 한 번 보았습니다. 예전에 영화를 볼 때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보았더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후통과 사합원 등의 건축양식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후통 곳곳에서는 마을 어린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고, 마을 어르신들은 장기를 두며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이 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역시 후통과 사합원이었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통해 베이징 사람들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었던 후통과 사합원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첫 부분에서는 택배 배달원들에게 사장님이 모든 후통들을 하나하나 다 외워서 배달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이징 토박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후통이 가장 많을 때는 6,000여 개, 현재에는 1,3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며, 유명한 후통은 300여 개, 이름이 없는 후통은 소털과 같이 많다고 합니다.[4] 그래서 이를 영화에서

▶사합원 입구



[4] 捷徑. pp. 86–87. 北京言語大學出版社.

나온 대사와 연관지어 베이징이라는 도시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박물관 방문은 예전에 막연히 갖고 있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베이징이라는 도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좋은 기회였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도시건설계획의 기본틀은 베이징이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바둑판처럼 나누어진 구획도시가 되도록 했으며, 이 바둑판의 한 칸이 사합원이고, 사합원 간의 경계가 후통으로 구분되며, 북경인들의 일상생활은 바로 이 곳에서 이루어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도시이자 천안문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된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북경을 둘러볼 때 무엇을 중심으로 보아야 북경과 북경인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여정은 그리 길지 않아서 베이징의 후통들을 하나하나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접할 수는 없었고 수도박물관을 통해서,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또 유리창을 너머 보이던 후통과 사합원만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베이징을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곳곳에 존재하는 후통과 사합원에 직접 들어가서 중국인들의 삶을 체험해보고 싶고, 이를 위해 중국어를 배워서 북경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사합원에서 홈스테이를 해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여정으로 베이징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잘 간직하고 다음에 또 다시 베이징에 방문할 날을 기약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

참고문헌

리원허 저. 이상해 · 한동수 · 이주행 · 조인숙 역. 2000.《중국 고전건축의 원리》. 서울 : 시공사.

앤드류 보이드 저. 이왕기 역. 1999.《중국의 건축과 도시》. 서울 : 성문당.

루경서 저. 한동수 역. 1996.《궁궐건축 (중국고대건축총서 1) 》. 서울 : 발언.

성주탁 역주. 1993.《중국 도성 발달사》. 서울 : 학연문화사.

3장

자금성의 춘하추동

강화현
이화여자대학교

제가 맡은 자금성(紫禁城)은 이번 여행 일정에서 원래는 제일 먼저 살펴보기로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중국식 샤브샤브 훠거와 그에 사리로 넣는 국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업원의 매력에 빠진 우리는 정해진 일정보다 길게 점심시간을 가졌고, 자금성은 국가박물관 뒤에 그 다음 날인 1월 4일에 답사하는 것으로 미뤄져 버렸습니다. 첫날이면 끝이 날 줄 알았던, 제 긴장과 두근거림은 결국 둘째 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베이징에서 첫날 밤 저를 잠 못 들게 한 자금성을 영락제의 봄, 강희제의 여름, 건륭제의 가을, 부의의 겨울로 소개하겠습니다.

자금성을 들어가다_ 오문, 금수교

자금성은 자색의 금지된 성이라는 이름처럼 비밀스럽게 감춰진 부분과 엄청난 규모, 호화스러운 장식물로,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

계인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명나라 영락제가 건설한 자금성은 오래된 역사만큼 파란만장한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고맙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금지된 성을 마음대로 드나 들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였고, 거의 완벽한 형태의 자금성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날 자금성은 지난날 황제와 함께하던 강력한 권위를 잃었고, 신하와 백성을 무릎 꿇게 하던 위압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자금성에 압도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와 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수많은 유물에서 과거 그 궁의 주인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성의 계절을 주인에 따라 나눈 이유는 자금성이 철저하게 황제를 위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금성에는 황제가 하늘이라는 생각이 문에까지 반영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단문(端門)을 지나면 나오는 오문(午門)을 봅시다. 오문의 입구모양을 보면 들어가는 쪽은 네모나며, 궁 쪽은 둥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양의 천



▼자금성 위성지도 (출처 : 구글지도)

원지방(天員地方) 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천원지방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는 옛날의 우주관인데요, 궁 안은 하늘인 황제가 살아 둥글게, 궁 밖은 땅인 백성이 살아 네모로 만든 것입니다. 또 태화문과 오문 사이에는 백옥의 5개 다리가 있습니다. 금수교(金水橋)라 하는데, 중용의 5가지 덕, 인(仁)·의(醫)·예(禮)·지(智)·신(信)을 상징합니다. 중앙은 황제만이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이현국 2008).

명나라 영락제의 봄_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

거대한 태화문(太和門)을 지나면 태화전(太和殿), 중화전(中和殿), 보화전(保和殿)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금성의 3대전을 보기 전 태화문 앞에서, 자금성을 건설하여 자금성의 봄을 연 영락제(永樂帝)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영락제는 정난의 변으로 조카인 건문제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릅니다. 영락제는 왕위를 찬탈하였기 때문에 주변에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대세력이 많았던 남경 대신, 왕위에 오르기 전 자신이 연왕으로 있었던 베이징으로 천도를 결심합니다. 남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락제는 천도 계획을 비밀리에 세웁니다(이근명 2002, 225-228).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태화문을 지나 태화전을 향해 걸었습니다. 태화전은 자금성 안에서 가장 광대하고 화려한 궁전으로, 황제가 옥좌에 앉아 귀빈들을 접견하던 곳입니다. 태화전의 앞에는 황제의 장

수를 기원하는 학과 거북이 상이 있습니다. 태화전의 뒤로는 중화, 보화의 두 개 대전이 있는데 이 3대전이 공식 행사들을 치르던 외조(外朝)입니다. 자금성은 공식행사를 위한 외조와 황제와 황후가 머물던 내정(內庭)으로 구분됩니다. 외조에는 세 개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중앙의 축을 강조하면서 3개 대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중 가운데 길은 황제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합니다(질베껭 2001, 15-17).

베이징 천도로 논란이 되던 때, 영락제가 매우 총애했던 서황후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락제는 그녀의 묏자리를 베이징 근처에서 찾습니다. 이를 통해 확고한 영락제의 천도의지를 읽어낸 신하들은 베이징에 새로운 궁전을 건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영락제는 크게 기뻐하며 조서를 내려 전국 각지로 궁전의 축조를 위해 필요한 자재들을 구할 것을 명합니다. 황제는 가장 충직한 신하를 사천 등지의 험악한 산악지로 녹나무 벌목을 위해 보냅니다. 녹나무는 예로부터 왕족의 관을 위해서 벌목한 목재로, 그 산지에는 호랑이 등의 맹수가 자주 등장하여 벌목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과거 태화전의 기둥이 바로 이 녹나무로 지어졌습니다. 이는 천 명이 산에 들어가 오백 명이 살아 돌아온다는 녹나무의 벌목을 강제할 수 있던 황제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KBS 2007a).[1]

태화전 뒤에는 중화전이 있습니다. 중화전은 황제가 태화전에서 행사를 거행하기에 앞서서 쉬던 곳이었습니다. 서태후가 친조카, 광서제

[1] 그러나 현재의 태화전 기둥은 청나라 때 소나무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를 유배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뒤로는 외조의 마지막인 보화전이 있습니다. 보화전 뒤쪽 돌층계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대리석 채석을 위해 인부 1만여 명, 병사 6,000여 명이 동원되었고, 대리석 운반을 위해서는 도로에 500미터 간격으로 커다란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혹독한 추위에는 우물에서 물을 끌어와 도로에 빙판을 만든 후 대리석을 운반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대리석을 베이징까지 운반하는데 총 28일이 걸렸습니다(KBS 2007a). 건축자재 준비에만 10년 이상이 걸렸던 자금성은 1406년부터 15년간 축조되어 1421년에 완공됩니다(박한제 외 2007, 132).

베이징 자금성은 명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영락제에 의해서 베이징과 자금성에는 봄이 도래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자금성은 성장의 계절, 여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청나라 강희제의 여름_ 건청문, 건청궁, 교태전, 곤녕궁

봄이 새싹이 트는 계절이라면 여름은 뜨거운 태양 아래 숲이 우거지는 계절입니다. 자금성은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건국되는 뜨거움을 견디면서 강희제(康熙帝)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강희제는 한족과 만주족의 민족융화정책을 펼쳐서 새로운 나라의 불안함을 제국의 안정성으로 바꾸어냈습니다.

강희제의 자금성은 서양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나라 말기 마테오 리치(Matteo Ricci)로 시작되었던 서양문물의 수용은 강희제 때 집성화 됩니다. 마테오 리치는 시계를 공물로 바쳐 처음으로 자금성에 입궐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가을' 에 가서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조를 지나면 건청문(乾淸門)이 나옵니다.[2] 건청문이 외조와 내정을 나누는데, 건청문을 지나면 세 개의 궁전, 건청궁(乾淸宮), 교태전(交泰殿), 곤녕궁(坤寧宮)이 나옵니다. 건청궁은 명대와 청대 초기에 황제와 황후의 침궁이었는데, 때로는 황제가 여기서 신하를 접견하거나 일상의 공무를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강희제도 건청궁에서 일상의 공무를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1688년 11월 28일 프랑스 과학자 6명은 건청궁에서 강희제를 알현합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과학을 위한 측정기구와 과학 서적을 가져와 황제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선물을 받은 강희제는 몹시 기뻐하며 그들을 입궁토록 하여 자신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외국인 과학자들은 청나라 궁정에 머물며 수 십 년 동안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강희제가 특별히 서양 과학에 관심이 깊었던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던 강희제는 과거 보정대신들에 의한 허수아비 황제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669년 강희제는 아담

[2] 기행에서는 시계가 있는 동선의 편의상 봉선전을 들렀다가 건청문으로 가서 가을을 먼저 살피고 여름을 살폈습니다. 그렇지만 기행문에서는 계절의 순서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샬의 조수였던 페르비스트와 당시 실질 권력을 잡고 있던 오배(鰲拜)의 지지를 받던 흠천감(欽天監) 사이에 대결을 벌입니다. 주제는 정오의 그림자 길이를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흠천감은 전통의 역법에 따라 계산하였고, 페르비스트는 서양의 과학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결국 흠천감의 계산은 더 큰 오차가 있었고 보다 정확했던 페르비스트가 이 대결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 황제는 흠천감을 페르비스트에게 맡기고 보정대신들의 권력을 제약합니다. 자신이 주관했던 역법논쟁을 보면서 강희제는 기하학, 수학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자금성에는 그가 사용했던 계산기, 그가 수학을 공부할 때 썼던 대수표 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KBS 2007b). 그가 중국의 전통 학문를 넘어서 예수회 선교사가 전파한 서양학문까지 사랑했고, 이들 선교사에게 명하여 전국의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를 만들게 했던 사실은 유명합니다(이명근 2003, 319).

건청궁 뒤의 교태전은 황후가 황족의 하례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안 쪽에 있는 곤녕궁은 청대에 와서 동과 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사용되었습니다. 동쪽 부분은 황제부부가 신혼 첫날밤을 보내던 곳이었습니다(질베껭 2001, 16).

강희제 시기의 중국은 동서양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습니다.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가 그를 친한 친구라고 표현하며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강희제의 자금성은 밖에서 들어오는 서양문물을 받아들일 만큼 안정적이었고, 그 문명을 받아들였기에 수확의 계절, 가을로 향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는 여름이었습니다.

청나라 건륭제의 가을_ 종표관, 봉선전

명나라와 청나라를 통틀어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는 건륭제(乾隆帝) 통치시기입니다. 봄과 여름을 거쳐서 수고했던 땀들이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강희제와 옹정제(雍正帝)가 만들어둔 토대에 힘입어 건륭제는 화려하고 찬란한 시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금성도 이 시기 가장 활발했으며 역동적이었습니다.

자금성의 화려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종표관(鐘表館)에 있는 시계들입니다. 2004년 9월 각국의 시계를 전시했던 고궁 종표관은 봉선전(奉先殿)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궁정시계가 약 200점 정도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시계전시실"(Hall of Clocks)이라 하여 추가요금을 내고 보아야 하는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속해있지 않





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시계들이야 말로 중국 전성기의 찬란함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륭제 시기의 시계에 대해서 살피기에 앞서, 자금성에서 시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름에서 언급했듯이, 자금성에 서양문물의 수용은 마테오 리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천주교 선교사로서, 중국에 천주교

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당시 황제인 만력제(萬曆帝)를 천주교 신자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황제를 알현하기 위해서 여러 공물을 바치는데, 만력제의 눈길을 끈 것이 시계였습니다. 만력제는 자명종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마테오 리치에게 주기적으로 입궐하여 시계의 수리를 명합니다. 이렇게 서양인이 처음으로 출입하게 된 계기가 된 시계는 건륭제가 가장 좋아하던 공물이었습니다. 중국은 명나라 말기 때부터 시계 제조를 시작하여 강희제 시기가 되면 시계 제조업은 크게 번성합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리는 기능을 넘어 음악이 나오는 스스로 움직이는 신기한 기계장치이면서 또한 호사스런 장식품이기도 했습니다(KBS 2007b).



▲동도금사자인종. 높이가 231센티미터로 태엽을 감으면 시계 밑 바탕에 서양인이 팔방향화 구토래왕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건륭황제가 아끼는 시계로 늘 곁에 두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시계를 바칠 때 건륭황제의 취미를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KBS 2007b).

자금성에 남아있는 건륭제 때 만들어진 유화나 시계들을 보면 자금성이 이 시기

얼마나 화려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계의 장식을 보면, 서양인들을 동원하고 그 정교함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양문물이 자금성에 많이 수용되던 청나라 초기, 강희제는 시계를 받아들이면서 시계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 등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강희제는 서양으로부터 부국강병을 위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륭제 시기를 거치면서 시계 등의 서양문물은 대부분 감상용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서양의 시계는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도 전등과 전화 등은 끊임없이 자금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황실은 이 시기에도 서양문물을 단지 향락의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결국 각종 시계를 만들던 과학기술로 서양은 군함 등을 만들어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자금성은 서양에서의 공물을 전시한 박물관이자 동시에 감옥이 되고 맙니다(KBS 2007b). 이 시기 자금성은 어느 시기보다도 화려한 물건들로 가득했지만, 추수 후 눈밭에 아무것도 심겨져 있지 않은 가을이었고 겨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겨울, 마지막 황제 부의_ 양심전, 어화원

화려했던 자금성의 스산해지는 겨울의 주인은 마지막 황제, 부의일 것입니다. 답사에서는 시간관계상 건청문에서 양심전(養心殿)에 대한 이

야기를 하고 실제 양심전을 방문하지는 못하였지만, 양심전과 어화원(御和園)은 부의가 자금성의 겨울을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양심전은 1723년 이래 황제들의 사저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질베겡 2001, 17). 중국의 2000년 봉건군주제는 이 양심전에서 막을 내리고 맙니다.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이 일어난 후 융유황태후가 강압에 못 이겨 퇴위선언을 했던 곳입니다.[3]

건청문을 지나 3궁 다음으로 나오는 내정의 맨 뒤쪽에는 어화원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어화원은 자금성에서 유일하게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자금성에서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자객이 숨을 위험 때문에 자금성 내에는 나무가 없답니다. 어화원은 영화《마지막 황제》속에서 부의가 놀았던 곳입니다.

자금성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성의 주인으로 있던 그에게 청소부로서의 말년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금성의 마지막 주인이 그러하였듯, 자금성의 겨울도 매우 혹독하였습니다. 모진 겨울을 겪으며 자금성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유물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열강이 돌아가며 자금성의 유물을 빼돌렸고, 황조에 등을 돌린 환관들도 외부의 도적에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년에는 주인이었던 마지막 황제 부의가 직접 자금성의 유물을 빼돌리고, 중일전쟁과 국공내전 등 연이은 전쟁으로 자금성은 중국 황실의 권위와 함께

[3] 네이버 지식백과의 검색어 “푸이” 참조 (검색일 : 2013.12.30). 네이버 지식백과의 출처는 두산백과임을 밝혀 둠.

처절하게 추락하고 짓밟혔던 것입니다. 자금성은 이 시기 중국의 겨울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자금성을 나가다_ 퇴수산, 신무문

어화원에는 퇴수산(堆秀山)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중국 태호지방에서 난 "태호석"으로 조성한 10미터 높이의 인공산입니다. 이 인공산을 보면서 자금성 가장 북쪽에 있는 후문, 신무문(神武門)으로 나오면 운하가 흐르고 있으며 그 맞은편으로 북해를 파낸 흙을 쌓아올려 만든 인공산인 경산공원(景山公園)이 보입니다. 부의의 자금성, 그 치욕스러움과는 대비되는 대국, 중국의 역량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필요에 따라 산이면 산, 호수면 호수를 지어버리는 중국 특유의 추진력에 감탄할 뿐입니다.

1925년 마지막 황제가 떠난 후, 이 거대한 궁궐의 용도는 박물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많은 황실 소장품들은 중국의 복잡한 근현대사 아래 뿔뿔이 흩어졌지만, 고궁박물원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운반하여 많은 유물들이 다시 자금성, 고궁박물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장개석이 값나가는 물건들을 대만으로 가져갔지만 중국 대륙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후, 중국 정부는 1만여 개 이상의 상자에 유물을 담아 상당수를 다시 자금성 안으로 회수합니다. 이에는 국가뿐 아니라 나라의 유물을 지키기 위하여 애쓴 민간 기증자들의 덕도 컸습니다(KBS 2007c).

더 이상 자금성에 황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성의 주인 자리를 황제가 아닌 과거 중화제국의 역사가 채웠기에 아직도 자금성은 중국의 상징이자 중국인의 자긍심의 대상입니다. ■



참고문헌

박한제 · 김형종 · 김병준 · 이근명 · 이준갑. 2007.《아틀라스 중국사》. 서울 : 사계절.

이근명 편역. 2002.《중국역사》. 서울 : 신서원.

이현국. 2008. 《중국시사문화사전 2008-2009》. 서울 : 인포차이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06709&cid=726&categoryId=1510 (검색일 2013년 12월 30일)

질베겡. 김주경 역. 2001.《자금성》. 서울 : 창해.

KBS. 2007a. "자금성 1부 : 탄생 비화".《다큐멘터리 아시아의 창》. 8월 3일.

——. 2007b. "자금성 2부 : 궁에 부는 서쪽 바람".《다큐멘터리 아시아의 창》. 8월 10일.

——. 2007c. "자금성 3부 : 유물의 이동". 《다큐멘터리 아시아의 창》. 8월 17일.

네이버 지식백과.

4장

베이징 유리창
_타임머신을 타고 연행사의 마음을 읽다

이규원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옛 베이징 내성의 정문인 정양문 밖에 위치한 유리창(琉璃廠) 거리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관광 가이드를 살펴보면 유리창 거리를 언급할 때 간단히 한국의 인사동 거리 정도로 소개하고, 베이징을 찾는 관광객들 역시 유리창을 가볍게 둘러볼 뿐입니다. 그러나 18, 19세기 유리창 거리는 각종 고서점과 골동품, 예술품을 파는 국제적인 쇼핑 거리로, 베이징 최고의 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초라하고 오래된 유리창 거리를 생각할 때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중국으로 가는 조선 사신 일행들은 항상 이곳에 들러 각종 서책과 잡화들을 구입하고 그곳의 지식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결국 18, 19세기 유리창 거리는 청나라, 조선, 그리고 서양의 문물

이 만나서 서로 충돌하고 변용되며 전파되는 국제 문화정치의 면모를 볼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나아가 국가 간 힘의 정치라는 거시적 차원의 국제정치가 아닌, 사람 간 교류가 만들어내는 미시적 차원의 국제정치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곳이 유리창 거리였습니다.

과거 찬란한 모습을 자랑했던 유리창 거리를 이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찾아가는 유리창 거리는 과거 사절단들이 기록했던 모습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쇠퇴했거니와, 2009년 올림픽 개최로 인해 도로가 정비되면서 그 부산했던 시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깔끔한 시장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리창 거리를 걸으면서 그 당시 조선 사절단이 느꼈던 여러 가지 느낌을—충격, 혹은 공포, 놀라움—느끼기는 힘들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백화점이라는 현대 소비문화의 정점을 경험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진 것도 유리창 거리에서 특별함을 찾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베이징 유리창을 답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 조선 사절단들이 무엇을 보고 느꼈고 누구를 만났을 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그들의 사고에 어떤 전환을 이루어냈으며, 이후 조선의 사회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유리창 거리를 걸었던 과정을 추적하고, 여기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오늘날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나아가 우리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오늘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유리창 거리의 과거와 현재_ 찬란한 과거의 퍼즐 찾기?

유리창이란 이름은 본래 명나라 시기에 궁에서 사용하는 유리기와를 제작하는 유리 공장이 있었던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이후 점차 다양한 재화를 파는 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나라 시기 최고의 시장이라고 불리던 유리창 거리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을까요? 사절 일행들이 기록한 유리창 거리의 화려함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다리와 난간이 빼어나고 사치한데, 순금이나 금벽과 단확으로 된 벽와가 영롱하여 마치 유리 같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조선 순조 22년 사절단에 참가했던 서유소(徐有素)에 의하면 "가게는 단청이 몹시 화려하다. 심한 경우 전부 금빛을 써서 황금옥을 이룬 것도 있다. 가게 주인은 비단 옷에 담비 갖옷을 입고 앉아서 장사의 저울질을 맡아 천하의 이익을 농단한다."라고 하였습니다(정민 외 2013, 24).

유리창의 이러한 화려한 모습은 당시 거리를 찾았던 연행 사절들에게 놀라움과 아찔함을 선사하였습니다. 연행 사절들의 말을 빌리자면, "정신 없이 구경하느라 고개가 아플 지경"이라고 했고, "진귀한 보물에 눈길을 빼앗겨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으며", "눈이 아찔하여 일일이 형언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정민 외 2013, 30).

당시 유리창 거리의 모습은 오늘날 어느 곳을 바탕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세계인의 명소로 자리잡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인근 명품 쇼핑거리를 떠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타

임스퀘어에는 지식인의 거점을 상징하는 서점들은 없고, 그 화려함을 비교한다면 당시 온 거리가 금과 옥으로 치장되어 있던 유리창 거리가 압도적이었을 것 같지만 말입니다.

유리창 거리가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이곳이 단지 지식인이 모이고 서적들이 넘쳐나는 서점거리일 뿐 아니라 다양한 소비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행 사절이었던 이홍식(李弘植)에 의하면, "유리창에는 크고 작은 서점 이외에도 각종 서화와 골동을 파는 가게들과, 서양 물품, 자명종, 오르골, 요지경, 앙금, 안경 등을 취급하는 가게들도 많았으며, 각종 은전포와 전당포가 있었습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만주족과 한인 외에도 베트남과 일본 및 서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인종들이 뒤섞여 있었으며, 찻집과 술집도 번성하였습니다."(정민 외 2013, 242) 민간 연희도 거리 곳곳에서 종종 이루어져, 연행 사절들이 이를 본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유리창이 언제부터 그 찬란함을 자랑했는지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연행 기록을 살펴보면 청 제국이 들어선 이후 18세기부터 유리창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리창 거리는 아마 이 시기부터 앞서 묘사한 화려한 모습의 시장으로 발전하였을 것입니다. 정민에 의하면, 유리창에 대한 가장 상세한 문헌은 청나라 이문조(李文藻)가 1769년에 지은 《유리창서사기》(琉璃廠書舍記)입니다. 한편 그전에 1765년에 홍대용(洪大容)이 유리창을 찾았고, 1778년 여름에는 유득공(柳得恭), 박제가(朴齊家), 이덕무(李德懋)가 다녀갔으며, 1780년에는 박지원(朴趾源)이, 1790년에는 유득공과 박제가가 이곳을 다시 찾았

다고 합니다(정민 외 2013, 90). 흥미로운 점은 유리창 거리의 변모가 청 제국의 형성과 이로 인한 중국의 사회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조 때부터 베이징은 청나라 황족들만이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에 한인들은 주로 성 남쪽 정양문 밖에 거처했는데, 그곳이 유리창 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유리창 일대는 한인 지식인들의 집단 거주지로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고서점과 골동기완(骨董器玩) 상점들이 밀집한 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합니다(정민 외 2013, 12).

그렇다면 지금의 유리창 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유리창 거리는 서울의 인사동 거리, 즉 옛날 물건들 혹은 옛날 건물의 자취가 남아 있는 거리 중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의 찬란함 대신, 오늘날에는 빛 바랜 고풍적인 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도로 정비를 하면서 북적북적한 거리의 모습 대신 깔끔한 느낌의 거리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명성과 찬란함이 빛이 바래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유리창의 모습에서는 과거 찬란함을 조금이라도 엿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징 유리창에서의 우리의 임무는 무엇이 될까요? 우선, 간간히 찾을 수 있는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내어 당시 연행 사절들이 느꼈던 놀라움과 아찔함의 감정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 유리창 거리의 모습에 관한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상상 속에서나마 그 화려함을 가늠해보려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행사의 마음을 읽는 타임머신 여행에 필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유리창 서점가 내부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과 우정 교류의 장입니다.

유리창 서점가

당시 조선 사절들이 베이징 유리창에 도착하면 무엇을 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연행사들은 각종 잡화들을 사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활동 중에서도 특히 사절들은 유리창 거리의 서점가에 들려서 서적들을 살펴보고 사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리창 거리가 번성했을 당시에 그곳에 존재하는 서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리창 서점가에 대한 묘사는 1769년 이문조의 《유리창서사기》와 1899년의 무전손(繆荃孫)의 《유리창서사후기》가 서점가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해놓았고, 그 사이 수많은 연행 기록을 통해 유리창 거리의 서점가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민에 의하면 특히 이문조의 《유리창서사기》는 18세기 중반 유리창 서점가의 현황과 각종 정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귀중한 1차 자료입니다. 정민이 《유리창서사기》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한 바를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시 서점들은 대부분 신서를 취급하였으며, 새로 나온 책의 경우 장정이나 종이 질이 썩 좋지 않았고 책 한 권의 두께도 매우 얇았습니다. 둘째, 고서를 취급하는 서점들이 옛날 책을 확보하는 방법은 대부분 몰락한 장서가 집안에서 책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표지가 아름답고, 모두 장서인(藏書印)이 또렷이 찍혀있는 고급 컬렉션이었습니다. 셋째, 유리창 서점 이외에도 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하였습니다. 당시 베이징의 서적 구입처로는 성안 융복사 등 몇 곳의 사찰 앞에

땅바닥에 펼쳐놓고 파는 난전들이 더 있었습니다(정민 외 2013, 98-101 참조). 이를 통해 살펴볼 때, 유리창 서점가는 가히 당시 중국 지성사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화려함을 자랑하는 유리창 거리에서 서점들 역시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그 규모도 규모이거니와 당시 조선 사절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엄청난 규모의 책들을 책장마다 표식, 즉 찌를 달아서 질서정연하게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박사호(朴思浩)가 쓴 《책사기》(冊肆記)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책을 쌓는 법은 이렇다. 집에 삼십여 칸을 만들고 각 칸의 네 벽에 선반을 설치하여, 층층마다 질서정연하게 배열하여 쌓아두고는 매질마다 '아무책'이라는 찌를 붙였다. 그래서 책이 용마루에 차고 집에 넘쳐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문 앞에 하나의 큰 탁자를 두고 탁자 위에 십여 권의 책갑을 놓았는데 곧 책 이름 목록이었다. 사람이 의자 위에 앉아서 아무 책을 사려고 하면 한 번 손을 들어 뽑아 주고 꽂는 것이 매우 편하고 쉬웠다." 이처럼 몇 만권인지도 알 수 없는 책들 사이에서도 원하는 책을 찾아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당시 조선 사절들에게 꽤나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리창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서점들은 조선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리창 거리에서 고서적이 넘쳐나는 서점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유리창 거리에서는 고서점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고서점보다는 큰 현대식 서점이 즐비하고, 인사동 거리처럼 공예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유리창 거리에 근근이 남아 있는 고서점들을 찾아본다면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재미는 있을 것입니다. 옛날의 방식처럼 책을 구비해 놓았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힘드나 오래된 책들을 살펴보면서 과거 조선 사절들이 느꼈던 문화충격이 존재했음을 되뇌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과 우정 교류의 장

조선 사절들은 베이징 유리창 거리에서 또 무엇을 하였을까요? 조선 연행 사신들과 중국 지식인들의 유리창 거리에서의 조우는 베이징으로의 여행이 주는 묘미였습니다. 특히 홍대용과 항주 세 선비와의 만남은 조선 후기 한중 지식인의 교류사 중 대표적인 이야기로 회자됩니다.

서로의 언어를 모르는 두 나라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교류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말은 다르지만 조선은 한자 문화권에 들었기에 붓으로 하는 필담이 가능했습니다. 필담을 통해서 중국과 조선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 살던 지식인들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담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시 두 나라의 지식인들이 처했던 상황적 제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유리창 거리에서 기거하던 지식인들은 멸망한 옛 명 왕조 시기의 한족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시 청 왕조로부터 문자옥(文字獄)의 위협을 느꼈고, 이에 필담의 내용을 찢어버리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조선 사절의 경우에 이들은 조선관에서 밖으로 나가는 시간에도 제약이 일정 부분 존재했기에 중국 지식인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홍대용의 《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은 유리창 거리에서 중국 지식인들과의 조우라는 일화를 통해 당시 중국 지식인을 만나는 조선 지식인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청대 전기에 조선 사절단들이 머물렀던 "옥하관"[1]은 출입이 엄격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이

[1] 조선 사절들이 머물러 "조선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후에는 문이 봉쇄되어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다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감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홍대용은 어떻게 유리창 거리를 나다닐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현명하게(?) 뇌물이라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돈으로 대사, 역관 등을 매수하여 자유롭게 출입할 기회를 얻었으며, 엄격한 출입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홍대용과 엄성(嚴誠)의 만남과 필담 교류는 그들에게 평생의 우정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교류는 조선과 중국이라는 서로 다른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엄성과의 만남은 홍대용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었고, 그 후 그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홍대용과 엄성이 만나게 된 일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만남에서 이들을 이어준 것은 안경이라는 물건이었습니다.

> 2월 초1일에 비장(裨將) 이기성(李基成)이 망원경을 사려고 유리창에 갔다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 용모가 단정하고 문인의 기질이 있다. 그런데 모두 안경을 썼으니 아마 근시이던 모양이다. 이가 청하여 말하기를 "내가 친척이 있어서 안경을 구하는데 거리에서 진짜 물건을 사기 어렵다. 당신이 쓴 안경이 근시안에 매우 적합할 것 같은데 내게 팔 수 없겠는가? 당신은 혹 여벌이 있을 것이고 새로 구한다 해도 쉽게 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니 그 한 사람이 벗어 주면서 말하기를 "그대에게 구하는 사람은 아마도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 모양이다. 내가 안경 하나를 아끼겠는가? 팔기는 무엇을 팔아. 가지고 가게." 하고 뿌리치고 가버린다. 기성은 자기가 경솔히 말했다가 공연히 남의 물건을 가지게 된 것을 후회하여 곧 안경을 가지고 쫓아가서 돌려주면서 말하기를, "아까 한 말은 장난으로 한 말이요,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받을 수 없다." 하니 두 사람이 모두 불쾌해 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조그만 물건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는 서로 도와 줄 의리가 있는 것이다. 무엇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양하는가?" 한다. 기성은 부끄러워서 감히 다시 말을 못하고 그 내력를 물었더니 절강(浙江)의 거인(擧人)으로서 과거 보러 북경에 올라와 정양문(正陽門) 밖 건정동(乾淨衕)에 하숙하고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기성은 그날 저녁에 그 안경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 사유를 말하고 나에게 화전(花箋)을 구해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보답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두 사람이 다 우아하고 가애(可愛)한 사람이니 한 번 가서 만나보라."라고 한다. 나는 화전 한 묶음을 주고 가서 자세히 알아가지고 오라고 부탁하였다. 다음날 기성은 과연 그들의 거소(居所)를 찾아가서 부채와 먹과 환약(丸藥)을 주었더니 다 사양하다가 받고 다시 다연(茶烟) 등 물건으로 회예(回禮)를 하는데 매우 예모(禮貌)가 있고 언사나 용모가 고결하여 반드시 남보다 뛰어난 재학(才學)을 가진 것 같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만나보라고 한다. 그래서 내일 같이 가기로 약속했다. 김재행 평중이 이 소식을 듣고 같이 가기를 원해서 동행을 하였다. 초3일 조반 먹

> 고 우리 세 사람은 인력거를 타고 정양문을 나가 2리쯤 가서 건정동이라는 곳에 이르니 상점이 있는데 천승점(天陞店)이라고 간판이 붙었다. 여기가 그 두 사람의 거소이다. 차(車)에서 내려 문 밖에 서서 마부를 시켜 먼저 들어가 통하게 하였다. 두 사람이 듣고 중문(中門) 밖에 나와서 마중한다.
>
> 《항전척독ㆍ건정동필담》(杭傳尺牘・乾淨衕筆談)[2]

이런 만남을 계기로 홍대용은 엄성과 반정규 등 중국의 지식인들과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때 단 한 번, 20여 일 간 얼굴을 마주 보고 세상사에 대해 필담을 나누면서 '홍엄지교'로 불릴 만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항주로 돌아간 엄성은 병을 얻어 이듬해 세상을 떠났는데, 이승과 결별하는 순간 홍대용이 선물한 조선의 먹을 가슴에 품고 그 먹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엄성이 그린 홍대용의 초상화는 《일하제금집》(日下題襟集)에 포함돼 홍대용에게 전달되었습니다(허진석 2012). 이러한 홍대용과 엄성의 교류 일화는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홍대용이 연행을 갔다 온 이후에 펴낸 《건정동필담》(乾淨衕筆談)은 이후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번지면서 향후 한중 지식인 간 교류를 증대시키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2] 국가지식포털 한국고전 번역원.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3FbizName=MK%26finId=001%26gunchaId=bv002%26muncheId=01%26seojiId=kc_mk_c002 (검색일 : 2014년 3월 31일).

우리에게도 외국인을 만나는 일 역시 하나의 강렬한 경험입니다. 한편 우리가 어느 나라를 여행할 때 그곳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면, 그곳 주민들의 얘기로부터 현재 유리창 거리의 모습 및 생활상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답사, 넓게는 여행의 묘미가 그런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며

유리창 거리의 찬란했던 역사를 알고 나면, 우리가 유리창 거리를 방문하는 순간에 그 거리는 단순히 한국의 인사동과 같은 거리로 각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과거 유리창 서점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유리창 거리 고서적 가게를 둘러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과연 유리창 거리에 과거 찬란한 역사의 흔적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이것이 이번 유리창 거리 답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참고문헌

정민 · 박성순 · 박수밀 · 박현규 · 왕쩐중. 2013.《북경 유리창 : 18, 19세기 문화거점》. 서울 : 민속원.

허진석. 2012. "박현규 교수와 함께 한 대륙 속 우리문화 흔적을 찾아서 5 : 베이징 류리창(琉璃廠) 거리". 〈동아일보〉. 7월 30일. http://news.donga.com/3/all/20120729/48163686/1 (검색일 : 2014년 1월 1일).

국가지식포털 한국고전 번역원.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3FbizName=MK%26finId=001%26gunchaId=bv002%26muncheId=01%26seojiId=kc_mk_c002 (검색일 : 2014년 3월 31일).



5장

백년국치의 상징, 원명원
_21세기 연행사의 눈으로 다시 보기

김지은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1월 4일, 여행 2일차 오후. 우리는 원명원을 보고 바로 이화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원명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원명원엔 볼 게 없을 텐데……' 그나마 이화원의 화려한 모습을 보기 전에 원명원 먼저 가는 걸 다행으로 여겼지요. 원명원은 이화원보다 규모는 더 크지만 안타깝게도 옛날의 모습을 많이 잃었습니다. 게다가 청나라 황제들이 여름에 피서지로 쓴 장소를 겨울에 가려니 발표자로서 마음이 여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 본 원명원의 모습들은 '을씨년스럽다, 황량하다, 메말랐다' 등의 수식어가 잘 어울릴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일행이 너무 실망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계속 말을 해두었습니다. "여기는 엄청 휑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바



▶ 원명원 입구에서 EAI사람들

로 그 점에서 원명원의 매력을 찾아보는 걸로 해요!" 휑해서 볼 게 없다면서 우리는 도대체 왜 원명원을 간 걸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은 매력은 뭘까요? 우리가 원명원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원명원이 겪어온 세월을 함께 살펴봅시다.

역사 속의 원명원

원명원은 청나라의 흥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나라의 전성기였던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이 무렵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면서 동아시아의 질서를 완전히

장악했지요. 원명원은 1709년 강희제가 아들 윤진(胤禛)에게 하사한 별장이었습니다. 최초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윤진이 옹정제로 즉위하면서 옹정 3년인 1725년부터 동, 서, 북의 세 방향으로 점점 확장되고, 황궁의 정원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옹정제는 특히 원명원을 여름 피서지로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후궁들을 데리고 원명원에 가서 지내는 모습은 《옹정제의 여인들》(后宮甄嬛傳)과 같은 중국 드라마에도 등장합니다. (드라마 5화를 보세요!) 그 뒤 건륭제가 바로크식 건축 양식을 더해 원명원을 더욱 크게 넓혔습니다. 1709년부터 1860년까지 황제들은 이곳에 기거하며 정무를 처리했습니다. 그 규모와 아름다움 때문에 원명원은 '정원 중의 정원'(萬園之園)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청나라가 흥하던 시기의 아름다운 원명원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중국 CCTV에서 2008년 제작된 《원명원》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추천합니다. 유튜브에 '원명원'을 검색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



◀ 원명원 지도

다.[1] 8분 남짓의 짧은 필름 안에는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시기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원명원의 모습들이 3D로 복원되어 있답니다. 이 필름은 원명원의 영화로운 역사를 강희제와 옹정제 시대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강희제 시대(1661-1722년)의 유적으로는 봉도요대(蓬岛瑶台), 구주청안(九州清晏), 정대광명(正大光明), 만방안화(萬方安和)를 소개하고, 옹정제 시대(1722-1735년)의 유적으로는 담박녕정(澹泊宁静), 방호승경(方壺胜境), 홍자영고(鸿慈永枯), 대수법(大水法), 해안당(海晏堂), 해기취(諧奇趣), 원양관(遠瀛觀)을 소개합니다. 이름과 사진만으로는 별 감흥이 없으실 것 같은데 꼭 한 번 필름을 감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유적들은 해기취, 해안당, 방외관, 대수법, 원양관 등으로 주로 옹정제 때에 건립된 곳들이 많습니다. 이 중 특히 유명한 곳은 대수법과 해안당 부근입니다. 대수법은 원명원 내 서양루에 위치한 인공분수인데요, 대수법과 그 주변을 일컬어 해안당이라고 부릅니다. 대수법 둘레에는 12시진을 대표하는 십이지동상이 있습니다. 동물들 머리 동상의 입을 통해 매일 정오에 물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나라의 찬란한 전성기가 지나고 19세기 중반 청은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원명원의 운명도 청의 흥망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1840년 제1차 아편전쟁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외국군대가 중국 대륙의 심장부인 베이징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주로 해안가에서만 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난 1860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56년 애로 호 사건이 시

[1] http://www.youtube.com/watch?v=vH9XYyq57iE (검색일 : 2014년 1월 18일).



발점이 되어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하여 청을 공격합니다. 영-프 연합군은 아예 베이징까지 공격해 들어왔는데 바로 이때 원명원도 불탔습니다. 해기취, 대수법 등 수많은 장소가 파괴되고 원명원의 문화재들은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대수법 십이지동상의 약탈과 반환을 소재로 한 영화가 바로 2012년 개봉된 《차이니즈 조디악》(Chinese Zodiac)입니다. 우리나라 배우 권상우씨가 출연해서 한국에 더욱 잘 알려진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우리 여행에서 원명원 발표를 맡겠다고 냉큼 정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영화 때문이었답니다. 조디악(zodiac)이란 황도 십이궁도를 말하는데, 중국의 조디악이라고 하면 쥐, 소, 호랑이, 토끼를 비롯한 12마리의 동물들로 상징되는 십이지신을 이릅니다. 이 영화는 중국의 국보급 보물들이 19세기의 전쟁을 거치면서 외국으로 흩어진 지 150여 년이 흐른 현재, 전 세계 경매장에서 고액으로 거래되는 12개의 청동상

▶ 대수법 유적



의 행방을 주인공들이 추적해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청동상 중 토끼와 쥐 머리 동상은 2009년 2월 프랑스의 경매장에서 각각 1,400만 유로(약 270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두 동상은 패션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과 그의 파트너 피에르 베르주가 소장해오다가 다른 소장품 732점과 함께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한국경제〉 2009/03/06). 이로 인해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는 중국 정부와 이를 거절하는 프랑스 사이에 냉랭한 국면이 펼쳐지기도 했었지요.

현대 중국인에게 원명원이란?

> “불은 모든 중국인의 체면에 수치를 그을렸고 모든 중국인의 마음속에 깊은 혐오를 새겼다. 불은 원명원을 파괴시켰지만 꿈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깨웠다. 황하와 장강의 민족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손목이 묶이고 눈물을 머금은 채 아름다운 정원이 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중국영화 《원명원의 불》(火燒圓明園)(1983)의 마지막 내레이션 내용입니다. 서양인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 그리고 그들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린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이 잘 드러나있습니다. ‘백년국치’(百年國恥)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현대 중국인들 중 특히 지식인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종종 이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19세기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은 처음으로 세계에서 상층부가 아닌 하층부로 밀려났습니다. 청나라가 전성기를 누릴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는데 하루아침에 서구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특히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서양의 무기 앞에서 한방에 무너져 내리면서 당시의 역사는 중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원명원은 바로 이러한 중국인들의 원래의 자부심과 서구와의 만남을 통해 겪은 백년국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오늘날 중국에서는 원명원을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 CCTV를 비롯한 많은 매체에는 원명원에 대한 수많은 특집 기사, 영상 자료 등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한 지 150년이 된 2010년, 원명원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명원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원명원의 파괴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할 것인지 아니며 복구할 것인지의 논란입니다.

먼저 문화재 반환 문제를 봅시다. 원명원은 중국 문화재 반환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CCTV의 원명원 약탈 및 소실 150주년 기념 특별리포트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 2006년 유네스코는 대략 160만 점의 중국 문화재가 현재 전 세계 47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추산했다. 그 중 100만 점은 원명원에서 약탈되었다고 알려졌다. 예를 들어, 2미터짜리 불교 사리탑(stupa)은 프랑스 퐁텐블로 궁전(Fontainebleau Palace)의 중국 파빌리온에서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중략) 이 중국 파빌리온은 1,000여 점의 중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320점을 대중에 공개하고 있는데 모두 원명원에서 약탈한 것들이다(CCTV October/20/2010).

앞서 소개한 영화 《차이니즈 조디악》의 모티프가 된 대수법의 십이지상은 원명원의 문화재들 중에서도 특히 부각되었습니다. CCTV의

같은 해 특별 리포트의 다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십이지상은 "중국의 잃어버린 문화재의 상징"이라고 불리며 세계 경매시장의 인기 품목이 되었다고 합니다(CCTV October/20/2010).

또 하나의 논란은 원명원의 파괴된 모습을 보존할 것인지 복구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20명의 중국인 전문가들이 베이징에 모여 원명원의 재건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재건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는 원명원의 파괴된 현장은 바로 19세기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뼈아픈 역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길이길이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원명원은 서양의 악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할 최적의 장소라고 평했지요. 이외에도 나머지 경관과의 조화라든지 재건 비용과 관련한 반대도 있었습니다. 반면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팽팽히 이에 맞섭니다. 만약 아름답게 재건해서 사람들의 경탄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러한 엄청난 경관을 파괴했던 서양 세력의 악행을 되새길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People's Daily Online* January/21/2005).[2]

문화재 반환 문제, 그리고 원명원의 보전 또는 복구의 문제들은 왜 오늘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문화재 소실의 규모라든지, 원명원의 파괴 수준이 워낙 크고 심각하니 논란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원명원이 갖는 상징성에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중국인의 '백년국치' 정서와 연결지어 생각해 봅시다.

---

[2] http://www.chinadaily.com.cn/english/doc/2005-01/21/content_411124.htm (검색일 : 2014년 4월 18일).

제임스 헤비아(James Hevia) 시카고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2013년 5월 21일 "파괴 이후 : 중국과 서양에서의 원명원"(The Afterlives of Ruins: The Yuanmingyuan in China and the West)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헤비아 교수는 이번 학기 사랑방에서 읽은 글들 가운데 하영선 선생님께서 흥미롭게 소개해주신 *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의 저자입니다. 헤비아 교수의 강연 동영상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답니다.[3] 헤비아는 오늘날 중국 정부가 원명원에 이처럼 주목하는 점을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마음 속 깊이 박힌 백년국치와 민족주의 정서로 설명했습니다. 앞의 두 가지 논란을 각각 적용해볼까요?

먼저 문화재반환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원명원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각종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에는 제2차 아편전쟁 때의 문화재 약탈 150주년 기념행사를 원명원에서 진행했습니다(CCTV October/20/2010). 이 행사에서 유명 배우인 성룡은 '국가'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러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지요. 이 행사는 서구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의 반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명원 문화재의 경매를 비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성룡은 원명원의 약탈된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2012년 개봉된 《차이니즈 조디악》이랍니다. 그는 특히 이러한 뜻이 단지 중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을

[3] http://www.youtube.com/watch?v=hAiLsuk_gLo (검색일 : 2014년 1월 18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서구 열강들에 대항하여 위 나라들과 연대감을 찾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날 참여한 가수들은 모두 무급으로 공연에 임했고, 가수들은 중국인들의 집단적인 기억의 일부로서 과거의 역사는 길이 남을 것이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매우 잘 드러난 행사였지요. 제2차 아편전쟁 때 원명원이 가장 많이 파괴되고 문화재들이 소실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명원이 오늘날의 모습처럼 심하게 파괴된 것은 그 이후 1900년의 의화단운동,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의 문화대혁명 시기의 대 혼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Lee 2005, 155-156). 굳이 "약탈 150주년"이라고 강조하며 서양 침탈의 역사만을 부각시키는 중국 정부의 의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의 침탈에 파괴된 현장을 복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원명원의 보존/복원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19세기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규범적인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하는 듯합니다. 오늘날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생각해봅시다. 두 나라는 군사, 경제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가치와 규범의 차원에서도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국은 가치와 규범의 면에서 열세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민족 독립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통제에 대해 서방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인권문제를 제기했지요. 소수민족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공격에 중국은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정부가 원명원으로 상징되는 19세기 당시의 서구의 침탈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바로 이

장소를 통해 서구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일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규범 차원에서 중국이 지금은 많은 공격을 받지만,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서방세계 역시 그리 떳떳하지는 않지 않느냐는 반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나오며_ 원명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까지는 중국인의 눈으로 원명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원명원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중국인의 것만 있지는 않겠지요. 서양인들은 어떻게 원명원을 보고 있을까요? 이번에 원명원을 가면서 저는 그곳을 거닐고 있는 서양인 관광객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서양인 관광객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운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서양인들이 정말 이 현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헤비아의 강연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같은 원명원이라도 중국인이 보는 원명원과 서양인이 보는 원명원은 다르겠지요. 똑같은 시공간을 거치면서 같은 사건을 겪었더라도 중국인이 겪은 제2차 아편전쟁의 역사와 영-프 연합군이 겪은 그 역사는 분리된 채로 재생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원명원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바로 “우리는 어떤 눈으로 원명원을 볼 것인가?”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인 나름의 시각이 있을 것이고, 서양인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우리의 19세



▲ 대수법과 함께 서양루에 있는 황화진 앞에서. 황제가 궁녀들과 놀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

기 역사를 떠올리며 함께 서세동점을 겪었던 중국인의 시각에 공감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조선을 속국으로 삼았던 청을 대신해서 눌러준 서양인의 시각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 맞을까요? 둘 다 아니라면 우리만의 제3의 독법은 무엇일까요? ■

참고문헌

Lee, Haiyan. 2009. “The Ruins of Yuanmingyuan: Or, How to Enjoy a National Wound.” *Modern China* 35, 2: 155-156.

〈한국경제〉. 2009. “이번엔 문화재 싸움…중국-프랑스 ‘3차 한랭전선’”. 3월 6일.

CCTV. 2010. “Gala Marks 150th Anniv. of Looting of Yuanmingyuan.” October 20.

———. 2010. “Yuanmingyuan Animal Head Sculptures: Symbol of China’s Lost Relics.” October 20.

———. 2010. “1.6 million Chinese Relics Held by 47 Museums Worldwide.” October 20.

People’s Daily Online. 2005. “Should Yuanmingyuan be rebuilt?” January 21.

http://www.youtube.com/watch?v=vH9XYyq57iE (검색일: 2014년 1월 18일).

http://www.youtube.com/watch?v=hAiLsuk_gLo (검색일: 2014년 1월 18일).

6장

서태후의 궁전
_새롭게 쓰는 이화원 기행문

전나눔
이화여자대학교

원명원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이화원(頤和園)으로 이동했습니다. 2014년의 이화원을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전에, 이화원을 먼저 다녀온 이들이 이화원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1930년 〈삼천리〉(三千里)에 실린 이화원은 사치와 향락을 누린 서태후(西太后)가 중국 일만 백성들의 고혈을 짜 건립한 중국 최고의 건축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삼천리〉 1930).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비하겠느냐는 감탄은 필자의 탄식과 조소였습니다. 1941년 사치스럽기 이를 데 없는 이화원은 "그다지 잘난 것은 아닌데, 갖은 영화를 누리다가 세상에서 갔다는 서태후"가 떠오르는 철 지난 여름궁전이었습니다(〈삼천리〉 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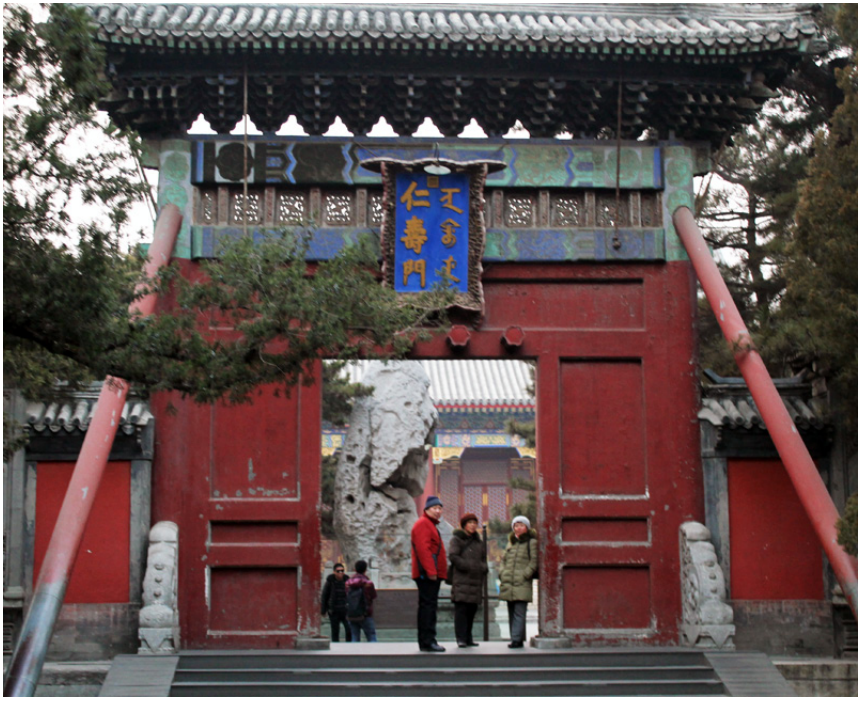
1949년 정부를 수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이후 중국)은 이후 모든 친미국가를 적성국으로 간주하는 외교정책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한국과 중국은 거의 30년 동안 단절의 벽을 쌓고 지냈습니다.[1] 1992년이 되어서야 한국과 중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민간 교류를 재개합니다. 20세기 후반의 이화원에 대한 기행문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시공의 단절 동안 변화에 변화들 거듭한 그들과 우리는 서로를 보는 시각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의 이화원, 새로 쓰이는 이화원에는 중국을 보는 21세기 젊은 그들의 눈길이 담겨 있습니다.

서태후의 내정(內政)

본래 궁녀였던 서태후는 1851년 함풍제(咸豊帝)의 후궁이 된 후로 권력을 향한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함풍제가 의문사한 후 신유정변을 일으켜 자신의 아들인 동치제(同治帝) 뒤에서 수렴청정을 한 서태후는 사실상 청나라의 여제가 되었습니다(베갱 2012). 성년에 이른 지 겨우 2년째 되던 해에 동치제가 사망하자 서태후는 자신의 4살짜리 조카 재첨(載湉)을 양자로 들여 1874년 즉위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광서제(光緒帝)가 됩니다. 이후 정치 일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서태후는 죽을 때까지 실권을 장악했습니다(구성희 2012). 1886년, 광서 12년에 광서제에게 정사를 넘겨준다는 조칙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헛것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시작된 서태후를 위한 이화원

[1] 《시사상식사전》. "한중수교".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4000&cid=504&categoryId=504 (검색일 : 2014년 1월 20일).



◀ 인수전 입구, 인수문. 이화원 입구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다.

재건이 권력의 실체였습니다. 1889년부터 서태후는 자금성에서 이화원으로 거처를 옮겨 국사를 이어갑니다.

인수전(仁寿殿)에서 서태후는 허울뿐인 광서제와 함께 정사를 보며 외빈들을 만났습니다. 이화원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호젓하게 자리한 인수전이 보입니다. 정문 앞, 궁궐. 인수전의 위치가 독특했습니다. 조선의 경복궁에서 정사를 보던 근정전은 궁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정전에서 정사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위치는 궁의 핵심에 닿아있는 것입니다. 식당에서도 좋은 자리는 문가가 아니라 안쪽입니다. 하지만 인수전은 이화원의 입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

▶인수문



당성을 잃은 술수로 자리를 지킨 서태후의 권력을 나타내는 듯했습니다.

이화원은 본래 피서와 요양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금나라 때인 12세기 초에 처음 조성되어, 1750년 청나라 건륭제(乾隆帝) 때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지어질 당시의 이름은 청의원(清漪園)이었습니다. 청의원이던 이화원은 제2차 아편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른 1860년 영-프 연합군에 의한 약탈과 방화로 훼손되었지만 1886년 재건되면서,[2] 그 유명한 서태후의 이화원이 되었습니다. 실권자 서태후의 국정을 돕기 위해 각종 전각과 사원을 새로 지은 이화원은 단순한 별장이 아니라 대국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궁전이 되었습니다. 이화원에는 피서와 요양

[2] 《두산백과사전》. "이허위안[Summer palace and imperial garden in beijing, 頤和園(이화원)]".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41428 (검색일 : 2014년 1월 24일).

을 위한 건물, 국사를 위한 건물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중 덕화원(德和園)은 휴식을 위한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덕화원에는 중국 최대의 경극극장이 있습니다. 서태후가 1891년부터 1895년 동안 은화 71만 냥을 들여 만들었다고 합니다(박미진 2013). 언뜻 위정자는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벗어나 조용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했을 것 같은데, 서태후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녀는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화려하고 경쾌한 경극을 사랑했습니다. 서태후는 이화원에 온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을 빠짐없이 경극을 관람했습니다. 특히 생일 때가 되면 생일 전 3일 생일 후 5일 9일간을 계속해서 경극관람으로 보냈습니다. 서태후는 심지어 직접 분장을 하고 경극 배우들과 어울리며 창을 하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김학주 2011).

2014년 1월 4일의 이화원은 1930년, 1941년의 그 날처럼 여전히 크고 웅장했습니다. 겨울이라 여름궁전의 화려함을 느끼기 어려웠지만 이화원의 규모에 압도되어 불식간에 터지는 “우와!”하는 감탄사는 멈출 길이 없었습니다. 이화원은 서태후가 애용한 황실 별궁이고 정원이었습니다. 거대한 인공호수 곤명호(昆明湖)와 약 60미터 높이의 인공산 만수산(萬壽山)이 어우러진 경치는 이화원 최고의 장관입니다. 곤명호는 넓은 바다인 듯싶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곤명호는 서태후에게만큼은 바다였는지 모릅니다. 해군력 증강을 위해 모아 놓은 국가 재정을 이화원 재건에 전용한 서태후는 정치적 비난을 무마하고 싶었습니다. 해군 훈련은 실제로 곤명호라는 그녀의 ‘바다’에서 이루어집니다. 서태후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한

풀 꺾였고, 곤명호는 정당한 예산 집행의 결과물인 듯했습니다. 이화원 재건으로 청나라가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공사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신명호 2010).

일만 백성의 고혈로 다만 자기자신을 위한 성을 지었다는 비난을 받은 서태후. 이화원은 청나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건축물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화려하기 그지 없는 이화원은 다만 한 사람을 위해 한 나라의 부(富)가 얼마나 집중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떤 사회건 축적된 부가 어떤 사회적 형태를 취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사회 내부의 권력구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하일브로너 외 2010). 서태후는 이화원에서의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을 강제할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태후 한 사람



▶그녀의 바다, 곤명호



◀곤명호와 만수산

을 위해 청나라의 부가 이화원에 집중될 수 있었던 까닭은 청나라의 경제가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나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명령으로 부를 재분배할 수 있던 사람은 서태후로, 그녀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반면, 시장에 의한 경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다만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화려한 건축물이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시장경제가 이루어지는 나라들에서 과거의 이화원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크고 화려한 장소는 복합상업공간입니다. 서울의 코엑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그 나라의 부는 익명의 다수가 지갑을 기꺼이 열만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 사용됩니다. 시장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는 '서태후의 이화원'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서태후의 외교

이화원의 장랑(長廊)은 곤명호 기슭을 둘러싼 긴 복도로 인수전과 덕화원을 이화원의 다른 전각, 사원들과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장랑은 길이가 778미터, 273칸으로 중국에서 가장 크고 긴 복도이며, 천장과 벽에 수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 '중국 최대의 야외 미술관'으로 일컬어집니다.[3]



◀ 장랑

서태후는 이 장랑을 의전 장소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친구들과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두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상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친구의 성격과 생각들을 알게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술 작품을 두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밖 제3의 물건을 소재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서태후도 이화원에 찾아온 타국 정치인들과 장랑에 그려진 그림들

[3] 《두산백과사전》. "이허위안[Summer palace and imperial garden in beijing, 頤和園(이화원)]".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41428 (검색일 : 2014년 1월 24일).

을 통해 서로의 의중을 가늠하지 않았을까요? 서태후가 장랑을 의전의 장소로 여겼을지 모를 일입니다.

장랑의 그림뿐만 아니라 장랑 속 곤명호도 서태후와 타국 정치인을 매개하는 그 무엇이었을 것입니다. 장랑 기둥, 바닥, 지붕은 액자가 되고 그 가운데에 펼쳐지는 곤명호는 계절에 따라 얼굴을 달리하는 그림입니다. 햇살이 비치는 물비늘을 드리운 아침의 곤명호. 겨울 날 오후 물안개 사이에 드러나는 그 광활함. 그 사이에 어떤 담화들이 오고 갔을지 상상하니 장랑을 걷는 마음이 새로웠습니다.

장랑을 따라 이화원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싶었던 곳은 청안방(清晏舫)이었지만, 시간이 늦어 직접 볼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1755년 건륭제 때 처음 지어진 청안방은 대리석으로 만든 배로, 총 길이가 36미터입니다. 청안방 위에 건축물들은 고대의 양식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유인혜 2009).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전복시킬 수도 있지만 청안방 만큼은 그럴 수 없다고 하여 청안방은 청조에 비유되었습니다. 청안방은 어떠한 외환에도 청조는 전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륭제 치하의 막강한 청나라의 국력을 나타냈습니다(인민넷 2010).

청안방은 제2차 아편전쟁 때 영-프 연합군에 의하여 소실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청안방을 1893년 서태후가 서양식으로 새롭게 개조합니다(유인혜 2009). 서양식으로 개조라. 임진왜란 때 불 타버린 경복궁을 일본식으로 재건했다면, 조선의 조정과 민(民)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태후가 아무런 변고 없이 서양 연합군에 파괴된 청안방을 서양식으로 재건하고 그곳에서 풍류를 즐길 수 있던 역

사적 배경이 궁금해졌습니다. 오래 전부터 국제도시였던 베이징에서 서양문물을 사치품으로 향유했던 청나라 황실문화 때문에 서태후가 청안방을 서양식으로 재건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개조일 수 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절대권력자였던 서태후를 대적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이화원을 나서며

이화원을 거니는 일은 감탄과 탄식, 질문이 서로 꼬리를 무는 여정이었습니다. 이화원 안에 살아 숨쉬었던 서태후를 의식하는 발걸음 속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EAI 사랑방에서 배운 관점으로 이화원을 뜯어보려는 패기로 시작한 답사였지만 마음만큼 이화원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래도 책으로만 보던 중국의 역사를 직접 만날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베이징의 추위를 느끼며 경험한 과거의 현장, 몸으로 배우는 공부. 사랑방 수업을 마치며 온 답사 여행이었는데 또 다른 사랑방 수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참고문헌

구성희. 2012.《한 권으로 읽는, 중국 여성사》. 파주 : 이담 Books.

김학주. 2011. "중국의 경극(京劇) 현황 연구"(Study of the modern chinese opera-jingju).〈학술원논문집〉50, 1: 47-110.

박미진. 2013. "이화원 덕화원 頤和園 德和園". http://www.doopedia.co.kr/photobox/comm/community.do?_method=view&GAL_IDX=130525000875137&category=total&categoryTerm=02&area_idx=&area_nm=&pdv_idx=&pdv_opt1=&pdv_opt2=&pdv_opt3=&pdv_opt4=&detail_str=&view_type=list&category=total&pageSn=1&autoType=gall&categoryTerm=all&searchTerm=%EB%8D%95%ED%99%94%EC%9B%90 (검색일 : 2014년 1월 20일).

박미진. 2013. "이화원 인수전 頤和園 仁壽殿". http://www.doopedia.co.

kr/photobox/comm/community.do?_method=view&GAL_IDX=130524000875043&category=total&categoryTerm=02&area_idx=&area_nm=&pdv_idx=&pdv_opt1=&pdv_opt2=&pdv_opt3=&pdv_opt4=&detail_str=&view_type=list&category=total&pageSn=1&autoType=gall&categoryTerm=all&searchTerm=%EC%9D%B8%EC%88%98%EC%A0%84 (검색일 : 2014년 1월 20일).

베갱, 질, 외. 김주경 역. 2012.《자금성》. 서울 : 도서출판창해.

신명호. 2010.《황후삼국지 : 세 황후는 어떻게 근대 동아시아를 호령했는가》. 서울 : 다산초당.

유인혜. 2009. "이허위안 칭옌팡 Qing yan fang 頤和園 清晏舫". http://www.doopedia.co.kr/photobox/comm/community.do?_method=view&GAL_IDX=101012000673372&category=total&categoryTerm=02&area_idx=&area_nm=&pdv_idx=&pdv_opt1=&pdv_opt2=&pdv_opt3=&pdv_opt4=&detail_str=&view_type=list&category=total&pageSn=1&autoType=gall&categoryTerm=02&searchTerm=%EC%B2%AD%EC%95%88%EB%B0%A9 (검색일 : 2014년 1월 20일).

하일브로너, 로버트 L. · 윌리엄 밀버그. 홍기빈 역. 2010.《자본주의 :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울 : 미지북스.

〈삼천리〉(三千里). 1930. "遺跡巡禮". 제10호.

————————. 1941. "蒙古紀行·北支紀行, 朴燕岩의 지나든 자최를 다시 찾어, 日蒙親善使節兩女士의 手記". 제13권 제7호.

〈인민넷〉. 2010. “이화원”(頤和園). http://korean.people.com.cn/196254/196260/196262/196266/12057033.html (검색일 : 2014년 1월 20일).

《두산백과사전》. “이허위안[Summer palace and imperial garden in beijing, 頤和園(이화원)]”.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41428 (검색일 : 2014년 1월 24일).

《시사상식사전》. “한중수교”.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4000&cid=504&categoryId=504 (검색일 : 2014년 1월 20일).

7장

두 얼굴의 마오쩌둥

우희원
이화여자대학교

들어가는 말

모주석기념관(毛主席紀念館)은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의 사망 이후 방부 처리된 그의 시신을 안치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때문에 이곳은 마오쩌둥의 마지막 순간과 죽은 이후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그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오쩌둥을 만나러 가는 길은 까다로웠습니다. 모주석기념관을 일정에 넣을 때부터, 우리는 2-3시간에 다다르는 입장 시간부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정 전날까지도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모주석기념관에 대한 후기(라기 보다는 일종의 경고)를 읽으면서, 피곤에 지쳐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 내일 일찍 일어날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때 시간은 이미 밤 12시를 향해가고 있었습니다.



입장까지 2-3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외에도 모주석기념관에 입장하는 과정은 엄격하고 까다로웠습니다. 카메라를 포함하여 짐은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으며, 내부에 들어가서는 공안의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말을 할 때도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모자를 쓰는 것 또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행객의 경우에는 신분 보장을 위해 여권을 반드시 챙겨가야 했습니다.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귀찮은 과정들이 필요한 걸까요? 도대체 마오쩌둥이란 인물은 어떤 사람이기에 죽은 이후에도 그의 시신을 보러 수많은 중국인들이 모주석기념관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일까요?

모주석기념관에 찾아가는 당일, 우리는 전날까지의 고된 일정으로 인해 예상대로 계획했던 시간보다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지체돼서 혹시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날까 몇 명이 먼저 택시를 타고 모주

석기념관으로 출발하여 줄을 서기로 했습니다. 모주석 기념관으로 향하는 택시를 잡고 목적지를 말하자, 택시 기사는 중국어를 못 하는 우리를 배려하여 모주석기념관이 "no open"이라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저를 비롯 미리 출발한 세 사람은 당혹스러웠지만 일단은 직접 기념관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자고 합의했습니다. 다행이 그날 모주석기념관이 휴관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줄을 선 사람이 너무 적어 택시 기사가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택시기사의 말 대로, 모주석기념관에 도착하자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 행렬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입구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는 했지만 우려와 달리 인터넷에서 보았던 긴 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출발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느라 잠시 동안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기다렸던 것 외에는 예상과 달리 너무나 쉽게 마오쩌둥을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여전히 적은 수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어째서 그 악명 높았던 긴 행렬이 우리가 갔던 날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마오쩌둥과 그만큼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얼굴의 마오쩌둥

모주석기념관에 들어가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들처럼, 마오쩌둥이라는 인물은 그 본모습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오쩌

둥의 생전 행동들은 오늘날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인물이 보여주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모습 앞에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까지 그는 투철한 민족의식의 소유자이자 뛰어난 혁명가였습니다. 또한 항일전쟁 때에는 당시뿐 아니라 미래의 정세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정도의 판단력과 분석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그의 행적은 오히려 과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특히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진행된 문화대혁명은 철저히 마오쩌둥의 책임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마오쩌둥의 과오는 너무나 큽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추산이 되지 않는 많은 수의 사상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 폭력성은 가히 경악스럽습니다. 건국 이전까지 마오쩌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내릴만한 요소들이 문화대혁명 시기에 들어서면 힘을 잃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오쩌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우선은 마오쩌둥의 이중적인 면모를 모두 살펴봅시다. 이 글에서는 마오쩌둥의 어느 한 측면만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최대한 균형 있게 마오쩌둥의 과와 실을 모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오쩌둥이란 인물을 어떻게 볼지는 순전히 각자의 몫일 것이며, 어떠한 정답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구전론

마오쩌둥이 남긴 수 많은 글 중 지구전론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마오쩌둥의 뛰어난 현실판단력과 정세분석력을 보여줍니다. 마오쩌둥은 일본의 중국 침략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38년 5월에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마오쩌둥은 "왜 지구전인가?", "최후의 승리는 왜 중국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에서 마오쩌둥은 일본과 중국이 각각 처한 상황과 특징, 국제사회의 반응,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 변화 등을 냉철하면서도 정확하게 비교 ·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 일본의 장점은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정치조직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적 원조를 능가하는 국제적 반대에 부딪힐 것인데, 그것은 일본의 퇴보적이고 야만적인 제국주의적 성격으로 인한 것입니다.

- 반면에 중국은 일본에 비해 군사력, 경제력에서 훨씬 약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넓은 영토, 풍부한 물자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전에서는 장점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항일전쟁은 진보와 정의를 대변하므로 국제적인 원조를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초기에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은 중국에게 패배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이와 같은 패배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화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이 가진 약점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며 중국의 강점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마오쩌둥 1989, 207-253).

1938년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마오쩌둥의 이와 같은 상황판단력과 현실분석력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어려운 건가?"하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일본이 패망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38년이라는 시점에는 어땠을까요? 일본의 패망을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현재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5년, 10년 후의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큰 틀에서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1938년 당시 마오쩌둥이 중일전쟁에서 중국의 승리를 예견했던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위와 같은 마오쩌둥의 예상이 단순히 그의 망상에 불과한 것일 수 있지 않겠냐고, 실제 역사의 전개와 일치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냐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지구전론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중국의 무조건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중국이 가진 약점과 일정 시기까지 중국의 패배가 불가피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단순히 망상이나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에 지구전론에서 나타나는 마오쩌둥의 판단력은 매우 균형 있고 현실성이 높으며 설득력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전론에서 나타나는 마오쩌둥의 뛰어난 능력과 업적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놓고 보자면, 마오쩌둥은 투철한 민족의식의 소유자이자 혁명가, 전략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이제부터 살펴볼 모습은 마오쩌둥에 대한 시각과 입장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구전론을 마오쩌둥의 뛰어난 업적과 성과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의 말년을 장식한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의 가장 큰 실책일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공산당 또한 공식적으로 마오쩌둥의 공과 과의 비율을 7대 3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율에 대해 세세하게 이의를 제기하기 이전에 중국공산당조차도 마오쩌둥을 무조건 변호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만큼 문화대혁명은 지도부를 비롯 중국사회 전체에 엄청난 상처와 영향력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철저히 마오쩌둥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 일어났던 사건이었으며 전적인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대혁명을 이해하려면 마오쩌둥이란 인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도 그의 말년을 지배한 문화대혁명을 반드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왜 마오쩌둥은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문화대혁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두 질문은 서로 다른 듯 하지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레로, 마리-클레르 베르제르(Marie-Claire Bergere)라는 프랑스 학자는 문화대혁명을 "마오쩌둥이 권력을 재장악하는 과정", 즉 "권력투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마오쩌둥의 권력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르제르조차도 문화대혁명이 마오쩌둥의 입장에서는 "혁명이 퇴락하고 수정주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했습니다(베르제르 2009, 184-185). 분명히 문화대혁명의 결정과 시행에서 나타나는 마오쩌둥의 모습은 비합리적이고 잔인하며 독재적입니다. 차라리 무시무시한 권력욕 때문이었다면 그의 이러한 기행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단순히 권력욕만으로 저지른 행동이 아니라 혁명을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실천에 옮겼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많은 고민이 됩니다.

마오쩌둥을 설명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혁명'이 될 것입니다. 마오쩌둥의 이런 특성은 그가 문화대혁명을 왜 일으켰는지도 어느 정도 설명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문화대혁명이 비

록 마오쩌둥의 지속적인 혁명에 대한 지향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해서 그 사건에서 나타나는 폭력성과 마오쩌둥의 과오를 백지화시키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앞서 이 글의 목적이 마오쩌둥의 극단적인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 양극단을 이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전론과 문화대혁명에 나타나는 마오쩌둥의 서로 다른 모습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가는 말

마오쩌둥에 대해 공부할 때도 저의 심정은 복잡했지만, 모주석기념관을 나올 때만큼 심경이 복잡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누군가의 시체를 보았기 때문에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비록 전에 들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여전히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그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 광경은 대단히 이질적인 것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람들에게는 그 시체까지 영원불멸하게 모셔놓을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역사와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해서 그 시체까지 경건하게 모셔놓아야 할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말년에 엄

청난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마 이것은 한국인인 저의 시각과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된 것이겠지요.

기념관을 나오면서 저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마오쩌둥은 시체까지 모셔놓았으면서 덩샤오핑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 중국인들은 마오쩌둥의 시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중국공산당이 의도한 것처럼 마오쩌둥의 업적에 감명받고 그에게 감사할까요? 아니면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걸까요? 혹시라도 저처럼 복잡한 심경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까요? 한 인물이 이처럼 한 사회나 국가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모주석기념관에 찾아가 마오쩌둥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

참고문헌

고지마 신지 · 마루야마 마츠유키. 1988.《中國近現代史》. 서울 : 지식산업사.

리버살, 케네스. 2013.《거버닝 차이나 : 현대 중국정치의 이해》. 서울 : 심산.

마오쩌둥. 이희옥 역. 1989.《모택동선집 Ⅰ》. 서울 : 전인.

마이스너, 모리스. 2004.《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 1 · 2. 서울 : 이산.

베르제르, 마리-클레르. 2009.《중국현대사 : 공산당, 국가, 사회의 격동》, 서울 : 심산출판사.

블레처, 마크. 2001.《반조류의 중국》. 서울 : 돌베개.

슈람, 스튜어트 R.. 1979.《모택동》. 서울 : 두레.

아마코 사토시. 2003.《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 서울 : 일조각.

전리군. 2012.《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上 · 下. 파주 : 한울아카데미.

스노우, 에드가. 2013.《중국의 붉은 별》. 서울 : 두레.

스펜서, 조나단 D.. 1998.《현대 중국을 찾아서》 1 · 2. 서울 : 이산.

부록

- **EAI** 사랑방 **2013**년 **2**학기 프로그램
- **EAI** 사랑방 제**2**기 참가 학생들이 말한다
  - "EAI 사랑방"은?
  - "EAI 사랑방 답사여행"은?

EAI 사랑방 2013년 2학기 프로그램

"동아시아 질서 건축사 : 고대천하에서 미래복합까지"

1주	동아시아 질서 건축사
2주	천하질서의 기원 I
3주	천하질서의 형성
4주	천하질서의 전개
5주	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6주	'금수'문명의 전파와 변용
7주	일본대아시아주의의 신화
8주	냉전질서 I : 한국전쟁의 비극
9주	연구논문 중간발표
10주	냉전질서 II : 미중 데탕트와 7 · 4 남북공동성명의 명암
11주	복합질서 I : 중국의 부상
12주	복합질서 II : 미중시대의 미래
13주	복합질서 III : 동아시아신질서 건축의 미학
14주	연구논문 초고발표
15주	베이징 답사 여행



"EAI 사랑방"은?

박규수의 사랑방을 알고 계신가요? 19세기 격변의 시대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박규수가 만든 공부방이었습니다. EAI 사랑방은 그 뜻을 이어 새시대를 열어갈 인재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앞서 걷고 계신 하영선 선생님의 큰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 학기란 시간은 참 짧으면서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바꿔놓을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끝날 줄 모르는 매주의 세미나, 자유롭게 진행되는 개인 연구, 그 뒤 사랑방 밖으로 나가보는 현장답사까지, 사랑방의 한 학기는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더욱 알차게 꾸려갈 수 있습니다. EAI 사랑방은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김지은

중국의 부상으로 곧 등장하게 될 신 세계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하영선 교수님과 21세기의 젊은 그들이 모인 공간. 단순 양적 방법론에 기초한 사회과학을 넘어 시대의 난맥상을 읽으려는 통찰력이 살아 숨쉬는 사회과학을 위한 공간. …… 전나눔

EAI 사랑방 제2기 참가 학생들이 말한다

학문이란 무엇일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영선 교수님의 말씀들, 수준 높은 읽기 자료들, 직접 발로 뛰는 답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하고 그 답을 얻는 과정에서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 할 14주를 보낼 수 있었다. …… 우희원



EAI 사랑방 제2기 참가 학생들이 말한다

EAI 사랑방 프로그램에서는 하영선 이사장님이 엄선하신 읽을거리를 읽으며 예습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각기 다른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며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며 14주 동안 세미나를 진행해나갑니다. 당대 동아시아 질서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공부방식은 다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EAI 사랑방만의 독특한 훈련방식입니다. 세미나를 종강한 후 떠나는 답사는 학생들이 답사지를 하나씩 맡아 가이드를 함으로써 스스로와 다른 친구에게 답사지의 역사적 맥락과 조건에 맞추어 참신한 관점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14주간의 훈련의 화룡점정을 찍게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 지혜수



"EAI 사랑방 답사여행"은?



중국의 역사가 국가박물관 안에서 생동감 있게 다가왔다. 박물관 속 유물들은 고려, 조선 유물들과 비슷하면서도 확연히 달라 인상 깊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고려, 조선의 멋과 미가 보다 정제되어 있고 어떤 법도를 따른다는 느낌을 주는데 반해 중국의 유물들은 세계 각지에서 영향을 받아 변칙적이고 다채로웠다. 국가박물관에서 이러한 중국의 국제적인 면모를 잘 설명해 준 혜수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한다.
…… 전나눔

사실 국가박물관에는 작정하고 혼자 아침에 와서 마감시간 때 나가본 적이 있어 어색하진 않았다. 하지만 혜수의 놀랍게도 명쾌하고 쏙쏙들어오는 해설에 다른 곳을 온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특히 술먹는 접시와 밥먹는 접시 등을 나누어 보니 더 자세히 보인 점이 기억에 남는다. 역시 박물관은 스토리가 있어야 살아난다. 단체로 박물관에 와서 보람찼던 적은 처음이 아닐까. 어쨌든 별 다섯개짜리 첫 일정!
…… 이소영





이렇게 긴 역사와 넓은 땅을 가진 나라 중국의 '국가'박물관이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할까 갈피가 안잡힐 것 같았다. 혜수가 각 시대별로 하이라이트를 알려준 덕에 훨씬 의미있게 구경을 할 수 있었다. 마감시간이 다가올 때 가이드의 빛이 더 발했다.“부자나라 송이예요. 도자기가 핵심입니다!”“자, 명나라에서는 금을 찾아 떠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별로 소장품을 봤는데 보는 내내 공간적인 광활함도 느꼈다. 바로 옆에 전시된 비슷해 보이는 유물이 출토된 곳을 보면 하나는 쓰촨이고 하나는 허난이였다. 비슷한 것들이 이 넓은 땅을 타고 어떻게 돌아다녔을까를 상상해보았다. 실제로 당 송에 이르면 외국인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 시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섞이는 모습을 엿보면서 지금 이순간 중국 국가박물관에 와있는 우리들은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지 생각해보게 됐다. …… 김지은

처음 가 본 중국 국가박물관은 중국의 대륙 크기답게 정말 크고 웅장했다. 우리는 하은주 시대부터 송당에 이르기까지 유물을 보다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중국은 방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 넓디넓은 곳에서 우리 스페셜 가이드(?)의 센스는 빛이 났다. 특히 측천무후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는 이야기꾼 뺨칠 정도였다. 그 박물관의 방대함은 다시는 잊지 못할 것이다. …… 이규원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동아시아연구원을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강국연	권용순	김봉하	김용수	김종휘	김형재	문진성
강규형	권지원	김상래	김용준	김 준	김형준	민병문
강명훈	금영수	김상우	김용직	김준홍	김형찬	민선식
강문선	기의석	김석준	김용호	김준희	김효신	민선영
강영준	김건민	김성경	김우상	김지영	김희동	민영석
강윤관	김건이	김성한	김 원	김지윤	김희정	민지숙
강은경	김건호	김세종	김 원	김지정	김희진	박경수
강은모	김건훈	김송주	김유상	김지태	나상원	박근아
강찬수	김경순	김수진	김유주	김지현	나정원	박대균
강현욱	김경지	김승빈	김윤호	김 진	남계승	박동선
고병희	김관용	김승혜	김윤희	김진기	남윤호	박미나
고승수	김광덕	김시연	김은기	김진아	남태희	박미영
고승연	김국형	김신숙	김은선	김진영	노영훈	박병우
고은희	김기정	김양규	김은숙	김진혁	노익상	박사라수현
고형식	김기준	김연옥	김은영	김창수	노재경	박상민
고혜선	김남이	김영곤	김인섭	김창욱	노현정	박상용
공성원	김남희	김영구	김인혜	김창원	노호식	박상준
공유식	김대영	김영목	김재두	김철영	노환길	박석원
공정문	김동건	김영미	김 정	김태현	라종일	박성만
공창위	김동은	김영섭	김 정	김판석	류재희	박성은
곽노전	김동호	김영원	김정섭	김하정	마금회	박소연
구법모	김만호	김영호	김정수	김한기	마정재	박수진
구상환	김미영	김예자	김정온	김현성	명정모	박순휘
구윤정	김병국	김용규	김정욱	김현전	문성환	박연호
구준서	김병표	김용남	김정은	김형석	문윤성	박영렬
권세린	김병희	김용렬	김정하	김형운	문지욱	박용준

동아시아연구원을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박장호 서미혜 신명철 오미영 윤정림 이상원 이재관
박재시 서봉교 신보희 오세정 윤정선 이상주 이재섭
박재준 서상민 신상화 오 철 윤창민 이상현 이정민
박정섭 서영민 신성수 옥우석 윤혜성 이상협 이정은
박정호 서용주 신성용 우미경 은종학 이상호 이정호
박종철 서은숙 신성호 우병익 이경애 이서현 이정환
박준형 서의석 신영준 원종숙 이곤수 이석환 이정희
박진원 서정원 신영환 원종애 이규호 이선주 이종수
박찬근 서창식 신윤경 유리나 이 근 이선희 이종진
박찬선 서희정 신준희 유문종 이근우 이성량 이종호
박찬욱 선승훈 심윤보 유승훈 이기황 이소민 이주연
박찬희 성정은 안건영 유욱상 이내영 이소영 이주헌
박창기 소치형 안용찬 유정석 이달원 이숙종 이중구
박창완 손대현 안준모 유지영 이동선 이승주 이지원
박천봉 손명정 안중익 유창수 이동욱 이승화 이지희
박 현 손 열 안현정 유흥민 이동찬 이승훈 이진아
박형민 손재키 안현호 육은경 이동훈 이시연 이창원
박휘락 송기춘 양순화 윤민영 이마리 이신화 이창헌
방효은 송우엽 양주명 윤병석 이미혜 이여희 이충형
배기욱 송원진 양호실 윤상민 이민교 이영복 이태석
배위섭 송지연 엄찬섭 윤석민 이민룡 이영주 이태환
백송현 송홍선 여동찬 윤영두 이민자 이용자 이 항
백승태 신관수 여현정 윤영철 이범주 이우관 이해완
백진규 신권식 예병민 윤용집 이병인 이원종 이해욱
백혜영 신동원 오명학 윤우성 이봉재 이윤미 이현옥
변기호 신동준 오미순 윤재훈 이상구 이인옥 이현우

동아시아연구원을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이현희 장세형 정랑호 정현철 차국린 최은혜 한준희
이혜민 장원호 정무섭 조규완 차동민 최재원 한지현
이혜선 장의영 정병갑 조동현 차두현 최종호 한진수
이호준 장재훈 정봉화 조상호 차순만 최준원 한하람
이홍구 장준혁 정석희 조성욱 채규호 최진원 한홍일
이홍규 장지상 정아영 조성재 채성일 최철원 허세홍
이홍미 장진호 정연태 조소영 채혜경 최현종 홍병철
이홍재 장태곤 정영국 조은희 최 강 추기능 홍성우
이효재 장 훈 정영진 조창걸 최 건 하영선 홍성원
이희정 장희진 정용화 조현선 최관주 하영호 홍승복
임명수 전경수 정원칠 조홍식 최규남 하형일 홍정현
임상균 전명선 정윤석 주미야 최대석 한계숙 홍주희
임성빈 전명호 정윤호 주영아 최동규 한금현 홍호영
임성욱 전상인 정재관 주진균 최병규 한상원 황석희
임성학 전영평 정재호 주 한 최병준 한상철 황성진
임재환 전은경 정주연 지만수 최복대 한석희 황 수
임지순 전재성 정주환 지병근 최신림 한선호 황의숙
임현모 전진호 정 준 지혜리 최신영 한숙현 황정원
임현진 전태홍 정진영 진건욱 최아진 한승혜 황준호
임홍재 전혜경 정해일 진선희 최영아 한용섭 황지환
장동우 전혜진 정현운 진재욱 최영안 한일봉 Stephen
장세린 정기용 정현주 진지운 최윤준 한정원 Ranger

EAI 출판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9.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10. 일본과 동아시아 :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11.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13. 미중관계 2025
14. 하영선 국제정치칼럼 1991-2011 · 上
15. 하영선 국제정치칼럼 1991-2011 · 下
16.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17.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 :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
18.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 복합과 공진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 역할 · 권한 · 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11. 2013 대통령의 성공 조건
12. 일본 부활의 리더십 : 전후 일본의 위기와 재건축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 패널조사를 통해 본 5 · 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7.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8.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5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 대선

EAI 영문서적

1.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2.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3. *Party Politics in East Asia: Citizens,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4. *Collective Violence in Indonesia*
5.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6.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7. *Future of North Korea 2032: Coevolutionary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EAI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2001-





















비매품
05300
9 788992 395762
ISBN 978-89-92395-76-2